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4호 2025년 06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이민자와 지역주민 화합해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5월 17일 수원 제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화·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원시민, 외국인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4면> 이정은기자

"외국인주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 기승, 주의해야"

최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0일 홈페이지에 '긴급공지'를 발표하고 법무부(출입국)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어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심사와 혹은 소속기관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를 사칭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례1) 사기범들은 출입국심사와 대표번호(02-2110-4039), 국제형사과(02-2110-3294),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02-6908-1345) 등 법무부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전화번호가 표출되도록 전화를 걸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이 전화를 받으면 구체적인 출입국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외국인주민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니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받아 적은 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번호는 수신 전용으로 발신 불가한 번호"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의 경우 발신번호는 02-6908-1345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례2)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출입국 직원(특정 심사관)을 사칭하

여 외국인주민에게 전화를 건 뒤 특정국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 질문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기 및 살인사건을 나열한 뒤 출입국사무소 여권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해요.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개인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가 그대로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 설치해서는 안돼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검찰청 출석, 개인정보 등 제공,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 시도 사례가 많은데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어요.

Fraudsters are illegally using the phone numbers of Ministry of Justice offices and impersonating government officials. The Customer Service Center (02-2110-3000) is for incoming calls only. It does not make outgoing calls.

The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does not make calls to people staying abroad, and its incoming call number is not 02-6908-1345. Scammers are impersonating officials from multiple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se scammers may call you and falsely claim that you are involved in a criminal case. Stay alert. Do not share personal information over the phone.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11면, 태국어 17면, 영어 11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1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9, 17, 30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17 영어(English) 11, 23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3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14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6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2, 3, 19, 29 나의 학습 My Study 8, 9, 12, 25, 28 외국인주민 14 도서관 Library 15, 27 교육 Education 6, 9, 18, 23 이주배경청소년 32 행사 Event 4, 5, 10, 21, 36 국제교류 7, 29 출입국 Immigration 34 보이스피싱 1, 11, 17 육아 Child Care 13, 30 사이버대 33 보건 Health 15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김동희·최효숙 도의원, 현장 목소리 청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부천, 군포, 평택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는 ▲종사자 처우개선(호봉인정) ▲아동 체험활동비 증액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돌봄 교사 명절 수당 지원 등을 호소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과 최 의원은 참

석자들의 고충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과 최효숙 의원은 한목소리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하성 기자

‘여성안심패키지’ 신청 접수해요

경기도, 6월 9일~27일 여성가구 전체 확대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여성에서 ‘여성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스마트홈카메라,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안심 물품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군별 지원 규모와 물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누리집, 시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거주지 시군 누리집 또는 여성정책 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31개 시군에서는 범죄 피해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여성안심패키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내 상시 비치된 안심패키지는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배부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안심패키지는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 속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 정책”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여성·아동·이주민 폭넓은 논의

문형근 의원,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5년 경기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

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계획(안)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2025 제2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

'머무를 권리, 꿈꿀 권리'
이주아동 권리보장,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2025. 6. 26. (목)
14:00 - 16: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회의실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

발 표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블레싱 (경기도외국인주민명예대사)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소정 (신천연합병원 마을건강센터 활동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참여신청
bit.ly/2025-제2차이민사회정책네트워크포럼

문의

031-853-9347

gmhr@gmhr.or.kr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슈케익하우스 수원본점의 신기출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기초학습지원사업(다배움) 학습교실에 참여 중인 다문화가족 16가정, 총 3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6세에서 13세까지의 자녀와 부모로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케이크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으며 짙

주머니 잡는 법, 케이크 샌딩 방법, 아이싱 등 실제 케이크 만들기 과정을 시연을 통해 익혔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카네이션 모양의 케이크를 완성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가족들과 카네이션 케이크를 만들며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초학습

지원사업(다배움)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한글 및 수학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배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수원 가족변화 양상 실태조사

수원시가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소회의실에서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2026~2030)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담당한다. 올해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은 수원시 가족의 변화 양상에 따른 가족 정책 추진 기반 분석과 수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원시민·관계 기관 실무자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근거해 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추진 방향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이다.

김영의 기자

어린이 대상 재미있는 체험하며 다양한 문화 이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반기 왔수업(다문화이해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수원시 관내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왔수업(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 내에 있는 헛님유치원, 수원금호초 병설유치원, 밤밭누리유치원, 뽀뽀유치원, 정전초 병설유치원 총 5개 기관에서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엘살바도르, 크로아티아, 중국, 베트남 등 총 4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

개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혼이민자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직접 제작한 문화 소개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의상, 악기 등을 만들고 체험해보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직접 수업을 진행한 한 강사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모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

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할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기관당 최대 2회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5개 기관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프로그램 모집에 대한 공고는 추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8일 광교산 등산안내소 일대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야외활동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장안구보건소 직원 6명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요 증상을 안내하고,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안내 ▲올바른 벌레퇴치제(기피제) 사용법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진드기는 농업 활동, 산책 등 야외활동 시 물릴 수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을 할 때 벌레퇴치제를 뿌리고, 긴 옷, 장갑 등 작업복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풀밭에서는 돛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김영의 기자





수원시, 세계인의 날 맞아 5천여 명 참여한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성황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의 국민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지난 5월 17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의장, 김기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고명진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장, 유경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윤영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 등 내외빈과 수원시민, 외국인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규 센터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100명의 외국인주민이 참가한 깃발 퍼레이드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과 이민자로 구성된 '해피 스타트 합창단'이 한국 전통민요 '아리랑 모음곡'을 아름다운 선율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JAS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복주머니 나눔 퍼포먼스, 이주민

이 참여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수원시는 기념식에서 모범 외국인 등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함께 만든 소통과 화합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함께한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은 도시”라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민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웃이며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이민자가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출입국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어린이합창단은 만국기를 흔들며 ‘작은 세상’을 합창하고 내·외국인이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네팔·몽골 전통 공연팀, 태권도 공연팀의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5면에서 계속> 이지은 기자



이날 축제장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부스가 마련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외국인지원 체험부스가 14개, 세계음식문화 체험부스가 14개, 바자회 부스 4개, 운영본부 등 지원부스 8개 등 총 40개 부스가 마련돼 휴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날 행사를 수원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만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새수원사회통합협의회와 한국이민재단의 후원으로 현장에서 ‘알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돕는데 기탁한다.

이외에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상담 부스를 운영해 체류 외국인에게 자격별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웃으며 손 잡고 함께 어울려요” 제17회 수원시 '다문화 한가족 축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 출신 이주민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왔는데 아주 흥겹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매년 외국인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민 이 모 씨는 “다름이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웃으며 손을 잡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민과 이주민이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축제는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했다.

이지은 기자

БНСУ-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400мянган воноор нэмэгдэнэ... 6-р сарын 23-ныг хүртэл бүртгэнэ. 한국 국가장학금 6월 23일까지 신청...이주배경청소년 배려해야

БНС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болон БНСУ-ын Тэтгэлгийн Сангаас 2025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2-р улирл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анхны шатны өргөдлийг 6-р сарын 23-ны 18:00 цаг хүртэл хүлээн авна.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нь бүх оюутан их, дээд боловсрол эзэмших боломжтой байх зорилгоор, сарын орлогын тодорхой түвшнээс доогуур байгаа их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 дундаас сурлагын шаардлагыг хангасан хүмүүст төрөөс олгодог орлоготой уялдсан тэтгэлэг юм.

Тэр дундаа, 2025 оны хоёрдугаар улирлаас эхлэн Засгийн газа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дэмжлэгийг 400,000 воноор нэмэгдүүлсэн байна.

Энэ жил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хэр их олгох вэ?

БНСУ-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систем нь гэр бүлийн орлогын түвшинээр хамгийн өндөр орлоготой 10-р шатнаас хамгийн бага орлоготой 1-р шатлал хүртэлх 10 шатлалаар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Энэ оны 2-р улирлаас эхлэн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I-р төрөл болох 3 болон түүнээс дээш хүүхэдтэй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зориулсан тэтгэлгийн хэмжээг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байна.

1~3-р шат 300,000 won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400,000 won), 4~6-р шат нь 200,000 won (Оло

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250,000 won),

7~8-р шат нь 100,000 won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150,000 won)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Харин 9-р шат нь Энэ жилээс анх удаа тэтгэлэг олгох оор болсон бол

10-р шат нь Тэтгэлэг олгохгүй байна.

Мөнгө нэмэгд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энэ жил олгогдох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хэмжээг харвал, Нэн ядуу бүлгийн болон ядуурлын ирмэгт байгаа оюутнууд бүрэн тэтгэлэг авна. 1~3-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5,85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4~6-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4,30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7~8-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3,55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9-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1,00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Нөгөөтэйгүүр,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нь нэн ядуу болон ядуурлын ирмэгт байгаа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ын орон сууцны зардлыг буу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орон сууц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н тэтгэлэг шинээр бий болгосон бөгөөд энэ удааг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эмжээг нэмэгдүүлснээр оюутнуудын өрхийн ачааллыг улам бүр хөнгөлнө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

Энэ оны 2-р улирлын эхний шатны нэгдсэн тэтгэл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хугацаанд орон сууц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н тэтгэлэг, улс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этгэлэг зэрэг олон тэтгэлэгт хамтран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оюутнууд нь Сургуулиа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ч буй оюутан, Сургуулиа завсарлаад эргэн орсон оюутан, Шинээр элссэн оюутан, Сургуулиа өөр сургууль руу шилжиж орсон оюутан, Өмнө нь гарсан ч дахин элсэн оюутан, бүх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 юм.

Ялангуяа сургуулиа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ч буй оюутнууд заавал 1-р шатанд бүртгүүлэх ёстой тул хугацаа болон аргачлалаа шалгаж, энэ удаа заавал бүртгүүлээрэй.

Бүртгэл: Солонгосын Тэтгэлгийн Сангийн вэбсайт [www.kosaf.go.kr], Мобайл аппликейшн (한국 장학재단)

ээр 24 цагийн турш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Гэвч бүртгэлийн сүүлийн өдөр болох 6-р сарын 23-нд оройн 6 цаг хүртэл бүртгүүлж болно гэдгийг анхаараарай.

Нөгөөтэйгүү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т хамрагдахтай холбоо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зөвлөгөө хэрэгтэй бол, Утасны зөвлөгөө: 1599-2000. Орон нутгийн тэтгэлгийн төвүүд (Залуучуудын гарааны төв, бүс нутгийн төвүүд) дээр очсоноор нэг нэгэнд нь тохирсон зөвлөгөө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Иргэншилгүй цагаач гаралтай өсвөр насныханд тэтгэлэг өгдөггүй юм уу?

〈중략, 한글 기사 2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เกาหลี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สูงสุด 400,000 won...สมัครได้ถึงวันที่ 23 มิถุนาย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ของเกาหลีและมูลนิธิ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าหลีจ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รอบแรก ภาคเรียนที่ 2 ปีการศึกษา 2025" จนถึงเวลา 18:00 น. ของวันที่ 23 มิถุนายนนี้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เป็นทุนการศึกษาที่เชื่อมโยงกับรายได้ ซึ่งรัฐบาลมอบให้กับนัก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มีรายได้ต่อเดือนต่ำกว่า ระดับที่กำหนด และเป็นไป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างวิชาการ ฯลฯ เพื่อให้ทุกคน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ได้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รัฐบาลได้เพิ่มจำ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เป็นสูงสุดถึง 400,000 won เริ่มตั้งแต่ภาคเรียนที่ 2 ปีการศึกษา 2025 เป็นต้นไป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ปีนี้, 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ท่าไร?

ระบ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แบ่งระดั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อกเป็น 10 ระดับ ตั้งแต่ระดับ 10 ซึ่งเป็นระดับที่มีรายได้ครอบครัวสูงที่สุด ไปจนถึงระดับ 1 ที่มีรายได้ต่ำที่สุด

ตั้งแต่ภาคเรียนที่ 2 ของปี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มีมติเพิ่ม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ประเภท I และทุน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 3 คนขึ้นไป โดย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รายได้ดังนี้ ระดับรายได้ 1-3 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สูงสุด 300,000 won (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เพิ่มเป็น 400,000 won), ระดับรายได้ 4-6 เพิ่ม 200,000 won (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250,000 won), ระดับ

รายได้ 7-8 เพิ่ม 100,000 won (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150,000 won) นอกจากนี้ ระดับรายได้ 9 จะ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ปีนี้ ส่วนระดับรายได้ 10 จะไม่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 แต่อย่างใด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ที่จ่ายในปีหลังจากปรับเพิ่มเงินแล้ว นักศึกษาที่ได้รับเงินดำ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ชนชั้นกลางล่าง จะ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ต็มจำนวน โดยระดับรายได้ต่างๆ จะได้รับทุนดังนี้ ระดับ 1-3 ได้รับ 5.85 ล้านบาท, ระดับ 4-6 ได้รับ 4.3 ล้านบาท,

ระดับ 7-8 ได้รับ 3.55 ล้านบาท, ระดับ 9 ได้รับ 1 ล้านบาท 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ได้จัดตั้ง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เสถียรภาพ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ขึ้นมาใหม่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ที่ได้รับเงินดำ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ชนชั้นกลางล่าง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นักศึกษาได้มากขึ้น จากการปรับ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ในครั้งนี้

ในช่วงเปิดรับ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บบรวมรอบแรกของภาคเรียนที่ 2 นี้ นักศึกษา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เสถียรภาพ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และทุนทำงานของรัฐควบคู่ไปด้วยได้ โดยกลุ่มผู้สมัครมีทั้งนักศึกษาปัจจุบัน, นักศึกษาที่กลับมาเรียนอีกครั้งหลังพักการเรียน, นักศึกษาใหม่, นักศึกษาที่โอนย้าย, และนักศึกษาที่กลับเข้าเรียนใหม่ รวมถึงนักศึกษาทุกค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นักศึกษาปัจจุบันจะต้องสมัครในรอบแรก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และวิธีการสมัคร เพื่อไม่ให้พลาด การสมัครในครั้งนี้

การสมัครสามารถทำได้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ผ่า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มูลนิธิ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าหลี (www.kosaf.go.kr) และแอปพลิเคชันมือถือ (한국장학재단) แต่ในวันสุดท้ายของการรับสมัครคือวันที่ 23 มิถุนายน จะเปิดให้สมัครได้จนถึงเวลา 18:00 น. เท่านั้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คำปรึกษาโด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โทรศัพท์ได้ (1599-2000) หรือติดต่อ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แบบตัวต่อตัวได้ที่ศูนย์มูลนิธิในพื้นที่ (ศูนย์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ริ่มต้นธุรกิจของเยาวชน และศูนย์ชุมชนในแต่ละ พื้นที่)

ไม่ให้ทุนการศึกษา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ลำเนา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จะมอบให้เฉพาะผู้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 ดังนั้นบุตร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จึง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ไ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ยังมีปัญหาที่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ลำเนา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ซึ่งเป็นกลุ่มที่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ริงๆ กลับไม่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

〈중략,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

'수원시와 한식으로 잇는 우정'

수원시, 루마니아 '클루지의 날' 한국음식행사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에서 열린 '2025 클루지의 날'에서 '한국음식행사'를 열고,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알렸다.

수원시는 5월 23~25일(현지 시각) 클루지나포카시에서 열린 클루지의 날 행사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시식·조리법 전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공무원과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소속 한식 전문 조리사들로 구성된 수원시 대표단은, 2박3일 동안 시민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치, 김밥, 닭강정, 불고기과전, 잡채, 떡볶이 등 6종의 한국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또 고추장 떡볶

이 만들기, 김치 담그기, 김밥 만들기 등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는 총 120명의 현지인이 참여해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 특산 요리인 수원양념갈비를 비롯해 돼지갈비, 잡채, 김밥 등 한국 대표 음식 조리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기술 교류 활동도 있었다. 수원시는 문화 공연과 음식 축제가 결합한 클루지의 대표 행사인 '클루지의 날' 축제에 열한 번째로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클루지나포카시 조리사들이 수원을 찾아 수원음식문화박람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수원이 클루지를 방문해 음식문화를 교환하며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클루지나포카시민들에게 한식의 맛과 정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로 두 도시 간 우호와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999년 클루지나포카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송하성 기자

'새빛멘토링' 참가자 모집해요~

수원시, 결혼이민자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수원시가 6월 1일부터 '새빛멘토링' 멘토·멘티를 각 10명씩 모집한다.

새빛멘토링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유사 국적의 선배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연결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또는 소그룹 멘토링 ▲일상적인 소통, 정보 공유(한국 문화·생활, 자녀 교육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서비스 정보 제공, 연계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어의 수준이 일상생활 대화 이상인 한국인 자원봉사

자가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멘티는 입국한 지 2년 이하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멘토·멘티로 참여하길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공고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작성해 전자우편(sadjkh@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새빛멘토링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수원화성 마을장인 교육생 모집

수원시, 문화유산 보존 나설 시민 찾는다



수원시가 6월 9일까지 '제2기 수원화성 마을장인'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은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시민이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시민을 문화유산 수리 기능자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65세(1960년생) 이하 수원시민 30명(행궁동 주민 15명, 그 외 지역 주민 15명)을 모집한다.

이론 수업은 6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 실기수업은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 무료 교육이다. 이론교육에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역사와 가치, 수원화성 성벽 구조, 한식 목구조, 문화유산 일상 관리 실무기초 등을 배운다.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진행되는 실기교육에서는 외벽기, 초벽·회벽 바르기 등 한식 미장을 배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6월 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 수원소식 > 시정소식에 접속해 '2025년 제2기 수원화성 마을장인 교육생 모집' 게시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팔달구 정조로885번길 1)로 방문(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 복원과 031-228-4413

송하성 기자

 수원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새빛멘토링

참여자 모집 안내



모집대상

(멘토) 입국3년이상 결혼 선배 이민자 또는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한 선주민
(멘티) 입국초기(2년이하) 결혼이민자

사업기간

2025년 6월부터

주요활동

- 1:1 또는 소그룹 멘토링 활동
- 일상생활 소통 및 정보 공유(문화, 생활, 교육 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제공
-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sadjkh@korea.kr)



문의: 수원시이주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TEL 031-228-2993, 2996

생동하는 6월, 오산시가족센터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부부집단상담, 중년기 부부캠프 등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언어는 베트남어며, 지원방법은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예약 필수) 모두 가능하다.

문의 070-4918-9174

#부부집단상담 실시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부부집단상담 ‘소통의 온도, 둘만의 언어찾기’를 진행한다. 부부집단상담은 이마고 부부대화법 이론을 바탕으로 배우자 선택이론, 안전한 의사소통 방법 등 긍정적인 부부관계 형성 및 건강한 갈등 해결방식을 교육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부 및 신혼부부(30~40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갈등 심화 전 예방적 개입을 통해 건강한 갈등 해결방식을 교육한다.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5쌍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부부집단상담은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문의 031378-0766

#중년기 부부캠프 운영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중년기 부부캠프 ‘중년부부 Reboot: 다시, 설레는 우리’를 진행한다. 이번 부부캠프는 다양한 삶의 과제와 변화에 직면한 광주시 관내 중년기 부부에게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부간 소통을 회복하고 결혼 만족도와 가족 건강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연 속 휴식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통해 개인의

웰빙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함께 도모하게 된다.

오산시 관내 중년기 부부 34쌍(40~60대)을 선착순 모집하며, 6월 27일과 28일 1박 2일로 진행된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이며, 부부당 100,000원(1인당 50,000원) 참가비를 내야 한다.

부부캠프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 치유 활동인 ‘마음챙김 명상’과 자연 속 모닥불과 함께하는 부부 감정공유의 시간 ‘힐링 KIVA’,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 타임 ‘황토 찜질’, 도구를 활용한 부부간 신체적 교감 회복 프로그램 ‘소도구 테라피’가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받는다. 부부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하며, 2023~2024년도 참가자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 031372-1335 김영의 기자

다국어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발송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말 기준 오산시의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총 1천 346명, 3천774건, 체납액 약 4억2천 300만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체납 항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다.

오산시는 관내 외국인 비율을 고려해 주요 외국어 3개 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했으며, 체납내역 확인 방법, 납부 절차, 체납처분 절차 등을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6월 프로그램 안내〉

사업구분	사업명	일시	대상	인원	내용
가족생활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4월~7월	다문화, 외국인 및 난민가족자녀 아동·청소년	40명	- 스피치강사, 컬러테라피스트 등 원하는 직업군 1Day 직업체험
		4~11월		10명	- 다중지능을 활용하여 흥미·적성 탐구하는 진로동아리
		상시		10명	- 1:1로 진로, 학업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 상담
	다문화가족서포터즈	상시	오산시 관내 다문화가족	-	신규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터 등록 프로그램이용연계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생활 안내 지원 등
가족돌봄 (온가족보듬)	가족상담	상시	모든 시민	-	- 개인 및 가족상담 - 이혼전·후 상담 - 다문화가족 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등
	심리검사	상시	모든 시민	-	- 개인심리검사 (성격기질검사, 불안 우울검사, 그림검사 등) - 가족심리검사 (가족관계검사, 부모자녀 양육태도검사)
	상담 사례회의	6/24(화)	상담원 및 실무자	8명	- 동료슈퍼비전을 통한 사례 분석 및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상담원 전문성향상교육	6/24(화)	상담원 및 실무자	8명	- 상담원역량강화로 가족상담능력향상
	사례관리	상시	오산시 관내 취약·위기가족	-	- 가족사례관리 - 서비스 대상자 상담 - 서비스 연계 및 사업지원인력 파견 - 정보제공 및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가족애 (愛) 프로그램	6/21(토)	오산시 관내 취약·위기가족	40명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무비 데이” (릴로&스티치)
지역공동체	경기육아나눔터 공간운영	상시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와 부모	-	- 경기육아나눔터 공간 이용 (월~금 10:00~17:00)
	경기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상시	초등 3학년 이하 자녀와 부모	2가정 이상 결성 시 활동가능	- 학습, 놀이, 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가족품앗이 구성 및 활동(월 3회 이상 활동 필수) 월 3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지원	매주 월 15:00~17:00 매주 금 15:00~17:00	결혼이민자	7명 7명	- 오해피 댄스동아리: K-POP 댄스를 배우며 친목을 도모하고 성취감도 느끼는 프로그램 - 하모니 브릿지: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중창단

오산시가족센터
〈6월 프로그램 안내〉

사업구분	사업명	일시	대상	인원	내용
가족관계	영유아기부모교육	4월~10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관 기관	-	- 영유아기 사회성발달교육 - 영유아기 성교육 -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중년기 부부캠프	6/27(금)~28(토)	관내 중년기 부부	68명	- 마음챙김 명상 - 부부 소도구 테라피 - 힐링 KIVA, 숲체험 등
	아버지역할지원 (아빠가빛나는학교)	6/21(토) 6/28(토)	관내 거주하는 아버지와 학령기 자녀	60명	- 미취학·취학 자녀 신체활동프로그램 - 관내 거주 아버지와 학령기 자녀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3~8월	관내 거주하는 부부 단위의 스포츠 동아리	5팀 (46명)	-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4월~11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50명	- 생활안전교육 02회·폭력 예방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5월~10월	결혼이주여성	12명	- 요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빛나는 ‘우리’가 되는 시간 - 매주 목 10시~12시 요리교실 - 매월 마지막 목 10~12시 자조모임 - 가족나들이
	중도입국자녀 한국 사회 적응지원	3~12월	9~24세 중도 입국자녀	11명	[중도입국자녀교실] - 한국어교육 - 심리정서지원·집단미술
		4~12월	대호중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12명	[언어로 다가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심리정서지원·집단미술
가족생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	4월~9월	초등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참여 가능)	38명	- 베트남어 교육(기초반·고급반) - 중국어 교육(기초반·고급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6월~7월	결혼이민자	반별 8~25명	- 한국어 단계별 과정 교육 실시 - 기초 1단계~5단계, - 토픽III, 국적취득면접 대비반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4월~6월	대호중학교 진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14명	- 맞춤형 진로설계 집단 컨설팅 (꿈을 향한 나의 진로여행)

Học bổng quốc gia Hàn Quốc tăng tối đa 400,000 won...Đăng ký đến ngày 23 tháng 6 이주배경 청소년도 별도 기준 마련해 장학 혜택 부여해야

Bộ Giáo dục Hàn Quốc và Quỹ Học bổng Quốc gia Hàn Quốc sẽ tiếp nhận hồ sơ đăng ký “đợt 1 Học bổng Quốc gia học kỳ 2 năm học 2025” đến 18 giờ ngày 23 tháng 6.

Học bổng quốc gia là học bổng dựa trên thu nhập do chính phủ hỗ trợ nhằm đảm bảo mọi sinh viên đều có cơ hội tiếp cận giáo dục đại học. Học bổng này dành cho những sinh viên đại học có mức thu nhập công nhận hàng tháng dưới một ngưỡng nhất định và đáp ứng các tiêu chuẩn về học lực.

Đặc biệt, chính phủ đã tăng mức hỗ trợ học bổng quốc gia lên tối đa 400,000 won kể từ học kỳ 2 năm 2025.

Học bổng quốc gia năm nay hỗ trợ bao nhiêu?

Chế độ học bổng quốc gia của Hàn Quốc được chia thành 10 mức, từ mức 10 là gia đình có thu nhập cao nhất đến mức 1 là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nhất.

Từ học kỳ hai năm nay, chính phủ Hàn Quốc quyết định tăng mức học bổng quốc gia loại I và học bổng dành cho gia đình có từ ba con trở lên như sau:

Đối với các hộ thuộc nhóm 1 đến 3, tăng 300,000 won (đối với gia đình có nhiều con: 400,000 won),

Nhóm 4 đến 6, tăng 200,000 won (gia đình nhiều con: 250,000 won),

Nhóm 7 đến 8, tăng 100,000 won (gia đình nhiều con: 150,000 won).

Nhóm 9 sẽ lần đầu tiên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trong năm nay, còn nhóm 10 sẽ không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Xem xét học bổng quốc gia hàng năm được chi trả trong năm nay sau khi áp dụng mức tăng, học sinh thuộc diện hộ nghèo và cận nghèo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ọc bổng toàn phần. Học sinh thuộc nhóm thu nhập từ 1 đến 3 sẽ nhận được 5,850,000 won, nhóm 4 đến 6 sẽ nhận được 4,300,000 won, nhóm 7 đến 8 sẽ nhận được 3,550,000 won và nhóm 9 sẽ nhận được 1,000,000 won.

Bộ Giáo dục hy vọng rằng việc tăng mức hỗ trợ lần này cùng với việc thiết lập học bổng ổn định nhà ở dành cho sinh viên thuộ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và cận nghèo sẽ giúp giảm bớt gánh nặng chi phí sinh hoạt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con em đang theo học đại học.

Trong đợt đăng ký tích hợp lần 1 học kỳ 2 này, sinh viên có thể đăng ký đồng thời các loại học bổng như Học bổng ổn định nhà ở, Học bổng làm thêm do Nhà nước hỗ trợ, v.v. Đối tượng đăng ký bao gồm tất cả sinh viên đại học như sinh viên đang theo học, sinh viên trở lại học, sinh viên mới, sinh viên chuyển trường và sinh viên tái nhập học. Đặc biệt, đối với sinh viên đang theo học, nguyên tắc là phải đăng ký trong đợt 1, vì vậy hãy kiểm tra thời gian và phương thức đăng ký để không bỏ lỡ đợt đăng ký lần này nhé!

ạn có thể nộp đơn 24/24 qua trang web của Quỹ Học bổng Hàn Quốc (www.kosaf.go.kr) hoặc qua

ứng dụng di động (한국장학재단). Tuy nhiên, vào ngày kết thúc nhận đơn là ngày 23 tháng 6, bạn chỉ có thể nộp đến 6 giờ tối.

Nếu bạn cần tư vấn chi tiết về việc đăng ký học bổng quốc gia, bạn có thể gọi điện để được tư vấn qua số 1599-2000 hoặc đến trực tiếp các trung tâm của Quỹ tại địa phương (Trung tâm Khởi nghiệp Thanh niên 청년창업센터, Trung tâm khu vực 지역센터) để nhận được tư vấn cá nhân hóa một cách trực tiếp.

Thanh thiếu niên di cư có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không?

Học bổng quốc gia chỉ được cấp cho những người đã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Do đó, con cá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hững người di cư lấy quốc tịch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uy nhiên, vấn đề là những thanh thiếu niên di cư những người thực sự cần được giúp đỡ lại không được cấp học bổng.

Rất nhiều thanh thiếu niên có xuất thân di cư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chuẩn bị học phí đại học vì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ừ cha mẹ. Vì các thanh thiếu niên này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và đi làm sẽ đóng góp cho xã hội Hàn Quốc, nên cần cải thiện chính sách để họ cũng có thể nhận học bổng quốc gia hoặc ít nhất được vay học phí.

〈한글 기사 23면〉

경기와국인SNS기자단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안녕하세요! Xin chào!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및 지원 개인 또는 기관
- 지원언어: 베트남어 ★
- 지원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예약 필수)
-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전화

전화 신청 070-4918-9174 온라인 신청 QR 코드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베품 오산시가족센터



소통의 온도 둘만의 언어 찾기

오산시가족센터 부부집단상담

- 7월 4일(금) 19시~21시 배우자 선택 이론
- 7월 5일(토) 10시~13시 감정 반응과 배우자와의 안전한 대화법
- 7월 11일(금) 19시~21시 정서적 연결 사랑의 언어
- 7월 12일(토) 10시~13시 사랑의 결단 관계 비전 설정

- 일시: 2025년 7월 4일~12일 (금,토) 총 4일 ★ 금요일: 19시~21시 / 토요일: 10시~13시 ★
- 대상: 30~40대 부부 및 신혼부부 5쌍
- 참가 비용: 무료
- 접수 기간: 2025년 6월 2일(월)~7월 3일(목)
- 접수 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안내 > 프로그램신청 > 2025년 부부집단상담
- 문의: 031-378-9766 (가족지원3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QR 코드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베품 오산시가족센터

오산시가족센터 2025년 중년기 부부캠프

중년부부 Reboot: 다시, 설레는 우리

"우리만의 길을 다시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에 동참하세요!"

캠프 일시	2025. 6. 27.(금) ~ 6. 28.(토), 1박 2일간
참여 대상	관내 40~60대 중년기 부부 34쌍 (선착순)
캠프 장소	강원 홍천 힐리언스 선마루 (홍천군 3면 홍천산길 122) * 캠핑장소 내 전기기기 통신 불가 (일부 제한된 장소만 통신 가능)
모집 기간	2025. 5. 21.(수) 10:00 ~ 6. 4.(수) 17:00
신청 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신청 * 부부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 필요 * 2023~2024년 부부캠프 참여자 신청불가 * QR코드 스캔: 오산시가족센터 (osan.familynet.or.kr)
참가 비용	1인당 50,000원 (부부당 100,000원, 참가 확정 후 개별 안내)
주요 내용	 마음챙김 명상  하룻 KIVA  한글 퍼즐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베품 오산시가족센터



이주민과 지역주민, 모두 존중하며 화합하는 도시, 구리시!

구리시, 가족+더하기 오색별빛 한마음 축제...세계인의 날 및 가정의 날 기념해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와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난 5월 17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잔디마당에서 2025년 세계인의 날 및 가정의 날 기념행사인 ‘가족+더하기 오색별빛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내외빈과 구민시민, 다문화가족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백경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인종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식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구리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아

가는 세계적인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에 구리시민과 외국인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구리시가 편견 없는 존중과 화합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리여성합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연 세계인의 날 기념식 1부 행사는 다문화 사업 활성화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팀의 베트남 전통 공연과 중국 자조 모임

자녀팀의 중국 전통 악기 고쟁 연주 및 전통춤 무대가 진행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2부 가정의 날 행사인 ‘가족+더하기 행복 페스타’는 구리시가족센터 주관으로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놀이 체험존, 다문화 이해 체험 부스, 가족 어울림 공연, 가족사업 홍보부스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의상 체험 ▲세계 문화체험 ▲가족 전통부채 ▲1인가구 페스타 ▲놀이체험존 ▲건강상담 등 다양한 체험부스 14개와 ▲가족사업 홍보부스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부스 2개

가 차려져 참가한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올해 한국가족센터협회 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윤성은 센터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흥겹고 즐거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지은 기자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foreign residents on the rise

The Immigration Office introduces cases of fraud crimes and urges cau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of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foreign residents. On May 20,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Headquarters announced an 'emergency notice' on its website, warning people to be careful of voice phishing scams impersonating the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from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voice phishing criminals are attempting to defraud foreign residents by impersonating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Inspection Division or its affiliated organization, the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1345 Call Center).

(Case 1) Fraudsters are making calls so that the phone numbers of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are displayed, such as the Immigration Inspection Division main number (02-2110-4039), the International Criminal Division (02-2110-3294), the Ministry of Justice Customer Support Center (02-2110-3000), and the Foreigner Information Center (02-6908-1345).

When a foreign resident receives a call, they mention the name of a specific immigration officer and ask for the foreign resident to appear at the prosecutor's office because the foreign resident was involved in an incident, or

ask for additional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you should write down the phone number and the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n call the number from another person's phone to confirm whether the person in charge actually called.

Regarding this case, an officia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Customer Support Center (02-2110-3000) is a number for receiving only and cannot be used for outgoing calls," and "In the case of the Foreigner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1345 Call Center), the outgoing number is not displayed as 02-6908-1345."

(Case 2) In the second case, the scammers pretend to be immigration officials (specific inspectors) and call foreign residents, asking if they have

ever been to a specific country. They then list various frauds and murders that have occurred in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and ask them to download the immigration office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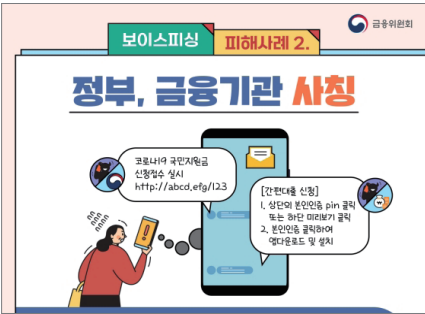
Do not download and install such apps on your smartphone, as they may expose your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to scammers and steal your money.

Regarding this case, an officia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said, "If a department or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sks you to appear at the prosecutor's office,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r download a smartphone app, you should first suspect voice phishing," and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attempted voice phishing crimes recently, so foreign residents should be careful not to become a victim."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становятся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честв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보이스 피싱 사기 주의 안내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попыток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20 ма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опубликовало на своём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роч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едупреждает от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Согласн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мош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бя сотрудниками отдел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Главного упра

вления ил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Центра комплекс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call-центр 1345) — и пытаются обману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ример 1) Мошенники звонят с номеров, которые идентифицируются как принадлежащие официальным отдел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включая: отдел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02-2110-4039),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головный отдел (02-2110-3294),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02-2110-3000), Центр комплекс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02-6908-1345).

Когда иностранец отвечает на звонок, они называют конкретное имя сотрудник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резидент причастен к какому-либо делу, требуя явки в прокуратуру ил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таком случа

е необходимо записать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и имя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сотрудника, после чего перезвонить на этот номер с другого телефона и убедить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данный сотрудник звони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яснил: «Номер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02-2110-3000)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приёма звонков и не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исходящих вызовов», добавив, что «в случае с call-центром 1345 номер 02-6908-1345 не отображается как исходящий».

(Пример 2) Во втором случае мош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ико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нкретным инспектором) и спрашивают иностранца, посещал ли он ту или иную страну. Затем перечисляют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мошенничества и убийств, произошедших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требуют установить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якобы связанное с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ой.

Если загрузить и установить такое приложение на смартфон, персональ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данны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даны мошенникам, что приведёт к потере денег. Поэтому такие приложени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устанавлива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тметил: «Если от имен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или учрежд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требуют явки в прокуратуру,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ли установку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ужно заподозрить голосовой фишинг», добави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и мы просим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быть особенно внимательными, чтобы не стать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도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이용해요

경기도, 취약계층 및 가정양육 가정에 교재·교구를 택배 발송하고 놀이지도사가 방문

다문화가정 중에는 영유아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경우 먼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해 언어발달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도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국인 놀이지도사가 집으로 방문

해 자녀에게 맞는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놀아주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돼요. 또 엄마는 놀이지도사가 자녀와 한국어로 놀아주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요.

지난해 4440가구에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지원한 경기도는 올해 1만5,990가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어요. 또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이에요.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교구가 택배로 제공돼요. 0~11개월은 놀이텐트, 모양블록, 12~23개월은 사파리 버스, 레인보우 블록, 상어낚시, 24~35개월은 자석블록 놀이세트가 배송돼요.

경기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가정보육가정은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일본어 하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向弱势群体和家庭保育家庭提供教材教具快递服务,游戏指导师上门指导

在多文化家庭中,婴幼儿子女的语言发育迟缓而苦恼的情况不在少数。

遇到这种情况,建议首先拨打家庭中心(多文化家庭支援中心)电话,接受语言发展服务。另外,也可以尝试使用京畿道的“婴幼儿教材教具配送服务”。

京畿道正在运营一项将适合婴幼儿发展阶段的个性化教材和教具配送到家庭,并提供游戏指导的“婴幼儿教材教具配送服务”。韩国人游戏指导师上门,利用教材教具与孩子一起玩耍,对孩子

的语言发展非常有帮助。妈妈还可以通过观察游戏指导师如何用韩语与孩子互动来学习相应的方法。

去年,京畿道为4,440户家庭提供了婴幼儿教材和教具。今年则大幅增加至15,990户。并根据参与者的反馈,将支持对象细分为0~11个月、12~23个月、24~35个月,并将每年的支持次数扩大至5月、7月和9月三次。

支持对象为居住在京畿道、育有0~35个月婴幼儿的家庭▲弱势群体基本

生活保障家庭·低收入家庭·单亲家庭) ▲家庭保育家庭(未使用托育机构的家庭)

入选的家庭将收到价值3万韩元的教材和教具快递包。0~11个月配送游戏帐篷、形状积木,12~23个月配送狩猎巴士、彩虹积木、鲨鱼钓鱼玩具;24~35个月可获得磁力积木游戏套装。

京畿道不仅提供教材教具,还提供包含使用方法和游戏创意的非面对面教学,有需要的家庭还可以通过分配到

各市郡的游戏指导师接受深化的游戏指导。弱势群体可以通过居住地区行政福利中心进行咨询,家庭保育家庭可以确认居住地区育儿综合支援中心主页(<https://url.kr/pxb28b>)的公告事项,在网上申请即可。

京畿道保育政策科科长高贤淑表示:“将通过符合发育阶段的教材、教具和游戏教育,提高父母的游戏自信心,为保障婴幼儿的玩乐权利做出贡献。”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脆弱階層及び家庭養育家庭に教材・教具を宅配発送し、遊び指導士が訪問

多文化家庭の中には、子どもの言語発達が遅れて悩んでいるケースがよく見られます。

そういう場合は、まず家族センター(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に電話して、言語発達サービスを受けるのが一番です。そして、京畿道の「乳幼児教材・教具宅配サービス」も利用してみてください。

京畿道は、乳幼児の発達段階に適したカスタマイズされた教材・教具を家庭に配送し、遊び指導も一緒に支援する「乳幼児教材・教具配送サービス」を運営しています。韩国人の遊び指導士が自宅を訪問

し、子どもの発達段階に合った教材と教具を活用して遊びをすることで、言語発達に大きな助けになります。また、遊び指導士が子どもと韓国語で遊ぶ方法を親も見て学ぶこともできます。

昨年4,440世帯に乳幼児教材と教具を支援した京畿道は、今年度は1万5,990世帯に対象者数を大幅に増やしました。また、参加者の意見を反映して0~11ヶ月、12~23ヶ月、24~35ヶ月に支援対象をより細分化し、年間支援回数も5月、7月、9月に拡大して運営する計画です。

支援対象は、京畿道に居住する生後0~

35ヶ月の子どもがいる▲脆弱階層(基礎受給・準基礎受給・片親家庭) ▲家庭教育(保育機関未利用)家庭です。

選定された家庭には3万ウォン相当の教材・教具が宅配で提供されます。0~11ヶ月は遊びテント、ブロック、12~23ヶ月はサファリバス、レインボーブロック、サメ釣り、24~35ヶ月はマグネットブロックの遊びセットが配送されます。

京畿道は教材・教具の支援にとどまらず、教材・教具の活用法や遊びのアイデアを盛り込んだ非対面教育も一緒に提供し、希望する家庭は各市郡に配置された

遊び指導士を通じて、より深い遊びのコーチングも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脆弱層は居住地域の行政福祉センターを通じて問い合わせが可能で、家庭育児家庭は居住地域の育児総合支援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https://url.kr/pxb28b>)のお知らせを確認し、オンラインで申し込むことができます。

コ・ヒョンスク京畿道保育政策課長は「発達段階に合わせた教材・教具と遊び教育を通じて、親の遊びの自信を高め、乳幼児の遊びの権利保障に貢献したい」と述べました。 <한글 기사 상단>

06 Jangan lupa kan asuransi khusus WNA!

Apa itu asuransi khusus WNA?

Asuransi untuk pemilik usaha

Bagian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 kepercayaan
Tujuan pengenalan	Mempersiapkan penundaan upah pekerja asing	Pencegahan pembayaran upah yang tidak dibayar dan pengurangan beban pembayaran sekaligus uang pesangon
Untuk	Pemilik usaha	
Berlaku	- Tempat kerja yang tidak terpenuhi oleh Undang-undang Jaminan Klaim Upah - Tempat kerja yang mempekerjakan kurang dari 300 pekerja tetap	Tempat kerja dengan lebih dari 10orang pekerja tetap
Tidak berlaku	Industri konstruksi yang menerapkan mempekerjakan pekerja asing (Pasal 12 ayat1 huruf 1 dari hukum yang sama)	
Tertanggung atau penerima asuransi	Pekerja asing	
Alasan pembayaran uang asuransi	- Dibayar jika pembayaran upah tertunda oleh pemilik usaha - Jika izin kerja diakhiri karena meninggalkan tempat kerja atau keberangkatan, sisa premi akan dibayar setelah perhitungan premi yang belum ditanggung(tidak termasuk premi asuransi pasca-jalan)	Keberangkatan pekerja asing yang bekerja di tempat kerja selama lebih dari 1tahun tanpa meninggalkan tempat kerja tersebut (Keberangkatan sementara tidak termasuk)
Prosedur klaim asuransi	Lihat halaman14	Lihat halaman16

Asuransi yang wajib didaftar(dibeli) oleh pekerja asing dengan visa E-9, H-2 berdasarkan pasal13,15 dan 23 "UU tentang Ketenagakerjaan Pekerja Asing,

Asuransi untuk pekerja asing

Bagian	Asuransi kecelakaan diri	Asuransi biaya kepulangan - kepercayaan
Tujuan pengenalan	Persiapan untuk kematian - penyakit selain dari kecelakaan kerja	Memakai untuk biaya yang diperlukan bagi pekerja asing untuk pulang ke negaranya.
Untuk	Pekerja asing	
Berlaku	Usaha atau tempat usaha yang telah mempekerjakan pekerja asing	- Indonesia, Filipina,Vietnam, Cina, Thailand: 400,000won -Sn Lanka: 600,000won -Lainnya: 500,000won
Tidak berlaku	—	—
Tertanggung atau penerima asuransi	Pekerja asing	
Alasan pembayaran uang asuransi	Pekerja asing meninggal dunia atau dalam kondisi trauma karena alasan lain selain kecelakaan kerja	-Keberangkatan pekerja asing (Keberangkatan sementara tidak termasuk) -Termasuk keberangkatan sukarela atau pengusiran paksa
Prosedur klaim asuransi	Lihat halaman15	Lihat halaman18

6-1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Apa itu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Jika Anda belum menerima upah termasuk uang pesangon, dapat dikompensasikan melalui asuransi jaminan untuk upah yang tidak dibayar yang diwajibkan untuk didaftar(dibeli) oleh pemilik usaha

Yang dijamin kan adalah sebagai berikut..

-Jumlah yang belum dibayarkan dalam batas 2juta won
-Untuk pembayaran uang pesangon,pembayaran selisih penerimaan dari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Proses aplikasinya sebagai berikut

Klaim asuransi setelah menerima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

Kirim laporan tentang upah tidak dibayar kepada Divisi Peningkatan Tenaga Kerja di kantor Ketenagakerjaan dan Perburuhan yang bertanggung jawab (Penerbitan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

Klaim uang asuransi kepada PT Asuransi Jaminan Seoul(SGI)

Perlu disiapkan dokumen-dokumen sebagai berikut.

1 lembar formulir klaim uang asuransi, 1 salinan buku tabungan(atas nama dirinya)
1 salinan KTP(Paspor atau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1 lembar Surat konfirmasi upah dan barang tidak dibayar(Dikeluarkan dari Kementerian Ketenagakerjaan dan Perburuhan(MOEL))
Dan lainnya(Dokumen tambahan yang diperlukan untuk audit kompensasi)

6-2 Asuransi kecelakaan diri

Apa itu asuransi kecelakaan diri?

Asuransi yang diperlukan untuk pekerja asing sebagai persiapan untuk kematian atau penyakit selain dari kecelakaan kerja.

Yang dijamin kan adalah sebagai berikut.

Meninggal dunia karena kecelakaan diri di luar pekerjaan,Trauma". Hingga 30 juta won
Meninggal dunia karena penyakit di luar pekerjaan,cacat total". Hingga 15 juta won

*Trauma: Dalam kondisi di mana penyakit tidak dapat sepenuhnya sembuh setelah perawatan atau tidak dapat menggunakan tenaga kerja seperti sebelumnya karena kecelakaan diri
**Cacat total. Dalam kondisi di mana cacat fisik secara permanen tertinggal karena sakit atau kecelakaan, yang mengakibatkan kehilangan total fungsi tubuhnya atau berkurang secara signifikan

Silakan mengajukan permohonan dengan disiapkan dokumen-dokumen sebagai berikut ini.

Mengajukan permohonan melalui telpon k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all Center dengan mempersiapkan dokumen-dokumen di bawah ini

Jika meninggal dunia	Jika mengalami trauma
①Aplikasi klaim asuransi ②Akta kematian ③Surat keterangan hubungan keluarga ④ Salinan kartu identitas dari orang yang diwarsikan: Kartu identitas atau salinan paspor dari semua orang yang diwarsikan sesuai dengan hukum wans negara (Kartu identitas yang termasuk foto, perlu salinan bagian depan/belakang) ⑤Surat kuasa penunjukkan perwakilan pewaris: Tetapkan 1 orang perwakilan pewaris dari para ahli wans berdasarkan hukum wans negara ⑥Salinan buku tabungan perwakilan pewaris: Jika dalam bahasa local, diserahkan setelah diterjemahkan dalam bahasa inggris ⑦Surat kuasa penyelidikan kecelakaan	①Aplikasi klaim asuransi ②Salinan Kartu identitas: Paspor atau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③Surat keterangan trauma

6-3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Apa itu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Premi asuransi yang dibayarkan oleh pemilik usaha sebagai uang pesangon untuk pekerja asing. Pada saat pekerja asing mengundurkan diri dari tempat kerja, uang asuransi yang dibayarkan dari pemilik usaha adalah perbedaan antara uang pesangon dan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tidak dapat diterima di Korea, maka Anda harus mengirimkan uang tersebut ke luar negeri atau terima di bandara saat Anda meninggalkan negaranya (Bahkan jika Anda bekerja di tempat kerja lebih dari 2, Anda akan menerima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dari masing-masing tempat kerja ketika Anda meninggalkan negaranya)

*Apabila bekerja kurang dari 1tahun, pemilik usaha berhak untuk menerima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karena tidak ada uang pesangon

Yang dijamin kan (tingkat pembayaran) adalah sebagai berikut.

Mulai dari tanggal pembayaran pertama (berlaku untuk pembelian setelah 15.7.17')

Kurang dari 12 bulan	Uang Pokok
Lebih dari 12 bulan	100.5%
Lebih dari 24 bulan	101%
Lebih dari 36 bulan	101%
Lebih dari 48 bulan	102.3%

Ini adalah cara klaim uang asuransi jaminan keberangkatan

Setelah memilih bank bandara terlebih dahulu, kunjungi bank tersebut secara langsung dan terbitkan"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Bank di Bandara : (Bandara Incheon) Shinhan Bank, Hana Bank, Woori Bank / (Bandara Gimhae) Shinhan Bank

Dokumen yang perlu disiapkan

Penerimaan di bandara	①Penerbitan "Surat perintah pembayaran uang asuransi" setelah aplikasi klaim uang asuransi melalui telpon ke perusahaan asuransi Dokumen klaim asuransi: Formulir klaim asuransi,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salinan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salinan paspor ②Bawa paspor, tiket pesawat, surat perintah pembayaran uang asuransi pada hari keberangkatan yang sama dan kunjungi bank pilihan Anda pada saat aplikasi klaim dan terima "Tanda terima penukaran uang" ③Setelah selesai pemeriksaan imigrasi, menerima uang asuransi dalam kas dengan menunjukkan "tanda terima penukaran uang" di Money Changer yang terletak di dalam toko bebas bea(duty free shop).
Pengiriman uang ke luar negeri	Aplikasi klaim uang asuransi melalui telpon ke perusahaan asuransi -Dokumen dasar untuk klaim asuransi: Formulir klaim asuransi,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salinan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salinan paspor -Dokumen tambahan sesuai dengan metode penerimaan -Pengiriman uang ke rekening lokal: Salinan rekening lokal -Pengiriman uang secara langsung ke bank lokal: Tidak perlu dokumen tambahan -Rekening khusus pengiriman uang ke luar negen: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Surat keterangan jadwal keberangkatan: Dalam hal keberangkatan karena berakhirnya masa kerja dan masa tinggal, pekerja harus mengirimkan "Pembertitahuan jadwal keberangkata" ke pusat ketenagakerjaan dari 1bulan sebelum tanggal keberangkatannya yang dijadwalkan dan memperoleh surat f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nya sesudah pengiriman pemberitahuan tersebut

6-4 Uang asuransi biaya kepulangan

Apa itu uang asuransi biaya kepulangan?

-Uang asuransi yang memakai untuk biaya yang diperlukan bagi pekerja asing saat pulang ke negaranya

Yang dijamin kan (tingkat pembayaran) adalah sebagai berikut.

Kurang dari 12 bulan	Uang Pokok
Lebih dari 12 bulan	101%
Lebih dari 24 bulan	102.1%
Lebih dari 36 bulan	104.7%
Lebih dari 48 bulan	107.4%

Ini adalah cara klaim uang asuransi biaya kepulangan

-Mengajukan permohonan melalui telpon ke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all Center
-Dokumen yang perlu disiapkan

Dokumen dasar untuk klaim uang asuransi	Dokumen tambahan ketika aplikasi rekening khusus pengiriman uang ke luar negeri
-Formulir klaim uang asuransi -Salinan buku tabungan atas nama dirinya -Dokumen identifikasi (Paspor atau kartu pendaftaran orang asing). -Surat konfirmasi jadwal keberangkatan	Surat penunjukkan bank transaksi devisa -Paspor

07 Yang perlu Anda ketahui saat tinggal di Korea!

Pusat konsultasi untuk tenaga kerja asing

-Menyediakan layanan konsultasi panggilan dan konsultasi kunjungan untuk pemilik usaha dan pekerja asing yang tinggal di Korea
Alamat: (15359) Emerald Building Lt.3, 16, Gojan 2-gil, Danwon-gu, Ansan-si, Gyeonggi-do
Homepage: www.HUGkorea.or.kr

Cara membuat panggilan

Tekan nomor 1577-0071. Setelah memilih pintas bahasa * Klik Pilih bahasa + *

1577-0071

Pilih bahasa + *

NO	BAHASA	NO	BAHASA
1	Korea	2	Cina
3	Vietnam	4	Filipina
5	Negara-negara berbahasa Inggris	6	Thailand
7	Indonesia	8	Sri Lanka
9	Mongolia	10	Bahasa Sinhala
11	Kamboja	12	Bangladesh
13	Pakistan	14	Nepal
15	Myanmar	16	Kirgistan
17	Timor Timur		

Kedutaan Besar Republik Indonesia di Korea

No.Telepon	02-783-5675
Alamat	380, Yeouidaebang-ro, Yeongdeungpo-gu, Seoul
Homepage	www.kemlu.go.id/seoul/tc

07 Yang perlu Anda ketahui saat tinggal di Korea!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ukungan konsultasi dengan bahasa asli dan dukungan untuk pendidikan praktis seperti bahasa Korea, computer, dll

Nama Institusi	No.telpon / Alamat / Homepage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02-6900-8000 k.migrantok.org (08395)GedungB Lt.1,3,4,1291, Nambusunhwan-ro, Guro-gu, Seoul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Uijeongbu	031-838-9111 ufwc.or.kr (11655)Gedung Deaja, 94, Gyeongui-ro, Uijeongbu-si, Gyeonggi-do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Gimhae	055-338-2727 www.gimhaekorea.or.kr (50916)Gedung Aizoa Lt.6 ,81, Garak-ro, Gimhae-si, eongsangnam-do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Changwon	055-253-5270 www.mfwc.or.kr (51266) 203, 3-15-dae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Incheon	032-431-4545 www.infrc.or.kr (21655)Myongjin Plaza Lt.2, 220, Hogupo-ro, Namdong-gu, Incheon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Daegu	053-654-9700 www.dfwc.or.kr (42914) Jinkwang Tower Lt.8-9, 863, Dalgubeol-daero, Dasa-eup, Dalseong-gun, Daegu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Cheonan	041-411-7000 www.dfwc.or.kr (31109) Sky Building Lt.4 ,21, Seongjeonggongwon 5-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Gwangju	062-946-1199 www.gjfc119.or.kr (62234) Gedung AridiumLt.2,146, Pungyeong-ro, Gwangsan-gu, Gwangju
Center dukungan Pekerja Asing di Yangsan	055-912-0255 www.ysfc.or.kr (50527) 28, Yeonho-ro, Yangsan-si, Gyeongsangnam-do

다양한 배경 청소년의 즐거운 연주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다산중앙공원서 야외연주회

남양주시는 지난 5월 20일, 다산중앙공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야외 연주회 ‘꿈의 향연’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내 집 앞 공원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초여름 저녁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리로 그리는 우리의 꿈’을 주제로 △베토벤 교향곡 합창 4악장 △고향의 봄 △꿈꾸지 않으면 △사건의 지평선 등 친숙한 연주곡과 동요, 가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합창이 어우러진 공연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늘 청소년들의 연주가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각자의 꿈에 당당히 도전하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돼, 2018년부터 안준만 음악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건강습관, 어릴 때부터 시작”

남양주보건소, 학교 방문 영양·절주 교육

남양주시는 남양주보건소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방문하는 건강생활실천 영양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음주의 해로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방식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생활실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되며, 1기 교육은 5월부터 6월까지, 2기 교육은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운영된다. 저학년과 고학

년으로 나눠 연령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 △당류 섭취 줄이기 등으로 구성된 영양교육과 △음주의 정의 및 해로움 △주류광고 비판적 이해 △음주 기대와 호기심 대처법 △음주 고글 체험 등으로 구성된 절주 교육이 병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각 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주 고글 체험을 통해 술이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 운영

남양주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을 올해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험교실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험교실은 북한강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다양한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일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대상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중심의 ‘수상레저 아카데미’

△초등학생 대상 물놀이 중심 ‘수상레저 체험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레저문화 체험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됐으며, 총 2,560명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1,500명 확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화도읍·조안면 일원의 수상레저 사업장 16개소에서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지은 기자

정약용도서관 ‘숨은 미션을 찾아라!’

남양주시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약용도서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 ‘정약용도서관 로드: 숨은 미션을 찾아라!’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생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정약용도서관의 특색 있는 콘텐츠다.

이벤트는 도서관과 다산문화공원 내 5개의 미션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정약용 캐릭터 굿즈 등 기념품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오는 7월 9일 남양주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션 장소는 △정약용 아카이브 △공공미술작품 ‘정약용 숨결, 현실에서의 재회’ △공공미술작품 ‘정약용의 정원’ △두물머리, 다산, 그리고 실험 미디어월 아트 전시 △정약용 동상 등 총 5곳이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하반기 한국어 교육 모집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구분	과정명	운영시간	운영기간	장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화,목)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29 ~ 11/27 11/27<평가>	한국어교실 1
	> 소시넷 사전 신청자 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화,목)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30 ~ 11/28 11/28 <평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초반	(수,금)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30 ~ 11/28	한국어교실 1
	발음특강반	(수,금) 13:30-15:30 [총 28회기 / 56시간]	8/6 ~ 11/19	한국어교실 1
	토픽반	(화,목) 13:30-15:30 [총 28회기 / 56시간]	7/29 ~ 11/13	한국어교실 1

프로그램 신청 방법

과정명	★해당 과정을 모두 신청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프로그램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01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01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기초반	01 사전교육(하)기초반	02 기초반1	03 기초반2	04 기초반3
발음반	01 사전교육 발음특강반	02 발음반1	03 발음반2	-
토픽반	01 사전교육(하) 토픽반	02 토픽반1	03 토픽반2	-

| 수강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회원가입 ★ 교육 받는 수강생 이름 가입 ★
> 로그인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 경기도/남양주시 검색 > 과정명 찾아 모두 신청



☎ 031) 556-8212 남양주시가족센터 가족돌봄팀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즐거운 1박2일 캠프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5월 24일과 25일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ON가족 소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인 ‘ON가족 소통캠프’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이다. 가족 소통 증진 및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활동으로 2021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올해 ‘ON가족 소통캠프’에는 광주시

관내 다문화가족 20가정, 총 7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족운동회, 팀워크 활동(카프라 쌓기 등)을 진행하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은 “가정의 달 5월, 가족은 물론 다른 다문화가족들과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스마트폰 없이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처음엔 낯설

었던 다른 가족들과도 금세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올해도 많은 가족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다문화가족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일상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광주시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전통문화 체험하며 한국어 실력과 적응능력 향상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5월 20일과 22일, 23일 ‘2025년 상반기 국내 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날인 5월 20일에는 장구 강사를 초청

해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전통 장단과 연주법을 배우는 ‘장구 체험’을 했다. 22~23일에는 풀짚공예박물관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체험 재료를 지원해 한국어교육 수강생 58명을 대상으로 ‘모시 빚자루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장구를 직접 연주하며 신나는 전통음악을 느낄 수 있었고, 모시 빚자루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공예를 배우며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익힐 수 있

어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5월 27일 장구 체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9월에는 전통음식 체험 ‘양금꽃 컵설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자립 위한 첫걸음 취업교육 개강해!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과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은 실제 카페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총 10회기의 전문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26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강의 기획부터 전달 역량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해

광주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문화 교실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같이 걷는 가치’라는 이름의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강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급당 1교시(45분)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참여형 실습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등 흥미로운 주제를 활용한 실습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의 기자

Tội phạm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nhắm vào cư dân nước ngoài gia tăng



Gần đây, các trường hợp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voice phishing) nhắm vào cư dân nước ngoài ngày càng gia tăng. Vào ngày 20 tháng 5 vừa qu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đã đăng thông báo khẩn trên trang chủ, cảnh báo người dân cần cẩn trọng trước các cuộc gọi mạo danh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của Bộ Tư pháp. Theo thông báo từ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tội phạm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đang giả danh Phòng Kiểm tra Xuất nhập cảnh hoặc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đài 1345), là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để lừa đảo cư dân nước ngoài.

(Trường hợp 1) Kẻ lừa đảo gọi điện thoại đến

bằng cách hiển thị số điện thoại của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Bộ Tư pháp như Phòng Kiểm soát Xuất nhập cảnh (02-2110-4039), Phòng Hình sự Quốc tế (02-2110-3294),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Bộ Tư pháp (02-2110-3000), Trung tâm Tư vấ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02-6908-1345).

Khi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cuộc gọi, chúng sẽ đề cập đến tên cụ thể của nhân viên xuất nhập cảnh và yêu cầu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Viện kiểm sát vì có liên quan đến một vụ việc, hoặc yêu cầu cung cấp thêm thông tin cá nhân.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ạn cần ghi lại số điện thoại và tên người phụ trách, sau đó nhất định phải gọi lại số điện thoại đó bằng điện thoại khác để xác minh xem có đúng là nhân viên đó đã gọi cho bạn hay không.

Đại diệ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ho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Bộ Tư pháp (02-2110-3000) chỉ dùng để nhận cuộc gọi, không thể gọi ra,” và “Trung tâm Tư vấ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đài 1345) không hiển thị số gọi đi là 02-6908-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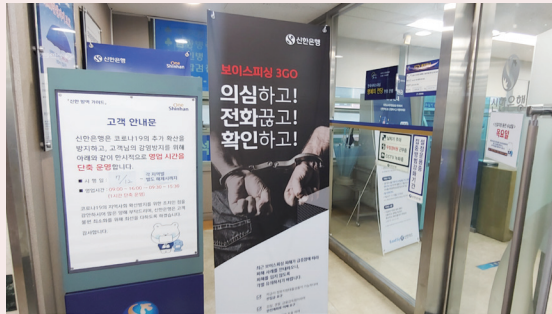
(Trường hợp 2) Trong trường hợp thứ hai, kẻ lừa

đảo giả danh nhân viên xuất nhập cảnh (một cán bộ kiểm tra cụ thể) gọi điện cho cư dân nước ngoài và hỏi liệu họ có từng đến một quốc gia nhất định hay không. Sau đó, chúng liệt kê nhiều vụ lừa đảo và giết người xảy ra ở các quốc gia Đông Nam Á, rồi yêu cầu người nhận cuộc gọi tải một ứng dụng của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về điện thoại.

Nếu tải và cài đặt ứng dụng này vào điện thoại thông minh, thông tin cá nhân và tài chính có thể bị lộ hoàn toàn cho kẻ lừa đảo và bạn có thể bị chiếm đoạt tiền bạc, vì vậy tuyệt đối không nên cài đặt ứng dụng đó.

Về trường hợp này, một đại diệ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huộc Bộ Tư pháp cho biết: “Nếu có ai tự xưng là nhân viên hoặc cơ quan thuộc Bộ Tư pháp yêu cầu bạn đến Viện kiểm sát,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hoặc tải ứng dụng trên điện thoại thông minh, bạn nên nghi ngờ ngay đây là một cuộc gọi lừa đảo (voice phishing)”. Ngoài ra, ông cũng nhấn mạnh: “Gần đây các vụ lừa đảo voice phishing đang diễn ra nhiều, mong các cư dân nước ngoài hãy cẩn trọng để không trở thành nạn nhân.”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ผ่านทางเสียงที่มุ่งเป้าไปที่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มีเพิ่มมากขึ้น 보이스피싱 주의



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 มีการขอ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เสียงผ่านโทรศัพท์ที่มุ่งเป้าไปที่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เพิ่มมากขึ้น

เมื่อวันที่ 20 พฤษภ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ออก “ประกาศฉุกเฉิน” บนเว็บไซต์ เตือนประชาชนให้ระวั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เสียงผ่านโทรศัพท์ที่แอบอ้างว่าเป็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ตามที่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ประกาศ มีฉ้อโกงในคดี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จะปลอมตัวเป็น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 ฝ่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1345) เพื่อพยายามหลอกลวง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

(กรณีที่ 1) มีฉ้อโกงโทรหาเหยื่อโดยทำให้

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ที่แสดงเป็นหมายเลข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ภายใต้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ช่น

หมายเลขหลักของกอง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02-2110-4039), กอ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02-2110-3294), 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02-2110-3000), หรือ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02-6908-1345)

เมื่อ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รับสาย มีฉ้อโกงจะอ้างชื่อ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โดยละเอียด และกล่าวหาว่า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มีส่วน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ดีบางอย่าง พร้อมทั้งเรียกให้ไปพบที่สำ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 หรือสอบถาม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เพิ่มเติม

ในกรณีเช่นนี้ ควรจดหมายเหตุ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และชื่อเจ้าหน้าที่ไว้ก่อน จากนั้นให้ใช้โทรศัพท์เครื่องอื่นโทรไปยังหมายเลขดังกล่าวเพื่อ ตรวจสอบว่าเจ้าหน้าที่คนนั้นได้โทรหาจริงหรือไม่

เกี่ยวกับกรณีนี้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ล่าวว่า “หมายเลขของ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02-2110-3000) เป็นหมายเลขสำหรับรับสายเท่านั้น ไม่สามารถโทรออกได้” และ “ในกรณีของ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1345) หมายเลขที่โทรออกจะไม่แสดง

เป็น 02-6908-1345”

(กรณีที่ 2) ในกรณีที่สอง มีฉ้อโกงจะแอบอ้างเป็น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โดยระบุชื่อเจ้าหน้าที่เฉพาะเจาะจง) แล้วโทรหา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 พร้อมทั้งสอบถามว่าเคยเดินทางไปประเทศใดประเทศหนึ่งหรือไม่ จากนั้นจะพูดถึงคดีหลอกลวงและคดีอาชญากรรมต่างๆ ที่เกิดขึ้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ถบเอเชียตะวันออกเฉียงใต้ และขอให้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หากดาวน์โหลดและติดตั้งแอปเหล่านี้ลงในสมาร์ทโฟน ข้อมูลส่วนตัวและข้อมูลทางการเงินอาจถูกเปิดเผยให้ มีฉ้อโกงและอาจถูกขโมยเงินได้ ดังนั้นห้ามติดตั้งเด็ดขาด

เกี่ยวกับกรณีนี้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คนต่างชาติดกล่าวว่า “หากหน่วยงานหรือองค์กรใดภายใ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มีการเรียกให้ไปพบที่สำ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 ขอ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หรือขอให้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พลิเคชันลงในสมาร์ทโฟน ขอให้สงสัยไว้ก่อนว่าอาจเป็น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และยังกล่าวเพิ่มเติมว่า “ปัจจุบันมีกรณีที่พยายามก่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หลอกลวง ทางโทรศัพท์จำนวนมาก ขอให้ผู้อพยพ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ระมัดระวังเพื่อจะได้ไม่ตกเป็นเหยื่อ”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직업 세계 경험하고 진로 준비

광주시, 2026학년도 대학입시·진로박람회 개최

광주시는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입시 불안감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7월에서 6월로 개최 시기를 조정했으며 총 36개 대학이 상담 부스를 운영해 대학별 전형 및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문 상담교사 45명으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박람회에 참여해 고3 수험생뿐 아니라 고1·고2 학생까지 대상으로 1:1 맞춤형 입시 상담을 진행, 2028학년도 입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총 15개의 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미래 유망 직군 체험(6개), 미래기술·4차산업 체험(5개), 대학 학과 체험(4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 진학 컨설팅 신청은 광주시 대학입시박람회 홈페이지(<https://edugj.joongboo.com>)를 통해 선착순 315명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청 평생교육과(031-760-4856)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협약

광주시-교육지원청, 영어 독서 프로그램



광주시는 28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으며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어교육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남도서관이 보유한 1만6천700여 권의 영어 도

서를 기반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원어민 교사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남도서관 내에 구축된 미디어스튜디오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교육과 연계하는 디지털 융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영어 특화 교육 사업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융합 교육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시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광주시,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 착공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를 위한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연 친화적인 건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 및 산책로 내에 흙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이중 70%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는 시비로 마련됐으며 ▲중대물빛공원 ▲태전동 경관녹지 ▲양벌자전거생태공원 ▲고산3호 근린공원 ▲목현천도시숲 등 5개소에 맨발 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각 조성에 세족장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파야스토리에서 비자, 취업, 커뮤니티, 토크 등 다양한 정보를 만나세요〉 이지은 기자



2026학년도

광주시

대학입시박람회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2025년 6월 14일 (토) 10:00 - 17:00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 및 야외광장

1:1 맞춤형 진학컨설팅

- 접수방법: 홈페이지 사전접수(선착순 모집 315명)
- 접수날짜: 5월 19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
- 준비물: 모의고사 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상담부스

- 접수방법: 현장 선착순 운영
- 참여대학: 총 36개 대학교 참여

가천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경희대, 경인교목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단국대, 동원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자대, 서울장신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수원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미래), 용인대, 인천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차의과대학, 충북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해군사관학교, ICT폴리텍대학

37가지 테마의 [1 2 3] 체험부스 운영

1

진로직업

2

미래기술
4차산업

3

학과체험

홈페이지 edugj.joongboo.com

문의전화 031-760-4856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키워요”
양평군가족센터, ‘세계인의 날’ 다문화이해 캠페인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하여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용문역에서 세계문화퀴즈와 다문화 간식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문화다양성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평군은 지난 18일 오전에도 양평역에서 같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퀴즈를 통해 다문화 관련

상식을 익히고, 세계 각국의 간식을 맛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지난 5월 20일까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세계인의 날’ 오행시 공모전이 진행됐다. 공모 결과 우수작은 가족센터 공식 SNS에 게시되고,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세계인의 날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 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어울려 사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 참가자 40팀 선착순 모집

청운면 수박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일)는 5월 27일부터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는 재능을 가진 군민 등의 실력을 뽐내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으며, 대상 100만원 상품권 등의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40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양평수박축제는 수도권의 유일한 수박축제로, 수박축제추진위원회는 양평수박을 사전 판매하는 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수박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원한 물놀이, 건강한 농·특산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박가요제를 통해 수박축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화합이 함께하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평수박축제는 금년 7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개최하며 수박농가의 소득증대와 수박산업의 지속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평수박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국군 장병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진행...뜨거운 현장 열기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5월 9일 질풍부대 질풍홀에서 국군 간부 및 병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현역 연예인이자 다문화 전문 강사로 위촉된 개그맨 정철규 씨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의미

를 더했다. 정철규 강사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병들은 진지하게 강연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교육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문화와 관련한 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양평군가족센터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 나아가 포용적 국방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2025. 05. 12. ~ 마감시 까지

교육기간 2025년 6월 ~ 11월

교육대상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유관 기관 종사자, 교사, 학부모 등

교육내용 폭력예방 교육 및 인형극

문의 및 신청접수 사업 3팀 031-775-5951
ypmc21@hanmail.net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ACTS UNIVERSITY 매력양평*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안내

모두가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 가요!
2025. 06. 02.(월)~11. 28.(금)

대 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
읍면단체(이장협의회, 부녀회 등)
지역사회조직(의용소방대, 방범대)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기타 양평관내 기관 및 개인

대 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 4대폭력 예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2) 다양한 유형의 폭력예방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사이버폭력 등

문의 및 신청접수
031-775-5951
ypmc21@hanmail.net

2025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

접수기간 2025년 6월 27일(금)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totoro1986@korea.kr

행사일시 2025년 7월 6일(일) 13:00~
예선 : 13:00 / 본선 : 15:00

행사장소 양평수박축제 특설무대
청운면 주민커뮤니티센터 앞
(양평군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2)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예선 40팀 선착순)

시상내역 대 상 1명 100만원 (상품권)
최우수 1명 50만원 (상품권)
우 수 2명 20만원 (상품권)
인기상 2명 10만원 (상품권)

자세한 사항은 양평수박축제 홈페이지 참조
watermelonfestival.kr

N 양평수박축제
주최: 청운면 수박축제추진위원회



스승의 날, 한국어 강사에 감사 전해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센터 3층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강사와 수강생 등 약 40명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 중인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들이 참석했으며, 각국의 스승의 날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나라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날짜는 달랐지만,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문화’는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배우고 함께 부르며

한국의 정서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 전달식을 통해 강사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일상생활의 소통과 지역사회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며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나누는 이 시간이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실생활 정보 제공, 자기돌봄 능력 키워요

하남시가족센터, 1인 가구 위한 ‘생활꿀팁 바구니’ 운영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꿀팁 바구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자기돌봄 역량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생활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올해 새롭게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리정돈, 자기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 팁과 맞춤형 물품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시는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으

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남시가족센터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문제와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생활꿀팁 바구니’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참여자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와 씨는 “정리정돈을 못 하거나 자신에게 늘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그 이유를 공감받고 해결 방안을 배울 수 있어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방*선 씨는 “예상보다 더 좋은 물품을 받아 놀랐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며 “연령대별 신체 건강 개선, 질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맛으로 배우는 문화”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8일 하남시가족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이중언어-중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중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게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자녀의 언어적 강점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3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문화적 이해를 함께 증진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수업 규칙과 출결 관리 등의 사전 교육하고, 수업 후에는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문화체험활동에서는 중국의 대표 전통음식인 만두와 마라샹궈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아동들은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며, 만든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고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자녀와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온가족 출산 클래스’ 출산 준비, 가족이 함께해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임신부와 가족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온가족 출산 클래스’를 운영한다.

하남시보건소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정서적 부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육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온가족 출산 클래스’를 통해 가족 참여형 교육의 문을 열었다.

이 교육은 하남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그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여는 간단하다. 신규 등록 임신부에게 매월 1회 문자로 발송되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밴드 ‘온가족 출산 클래스’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과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 존중하며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어요!



하남시가족센터, “다름 속 하나, 함께 만드는 하남”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성황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20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다름 속 하나, 함께 만드는 하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서춘성 운영위원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등 내외빈과 하남시민,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식전공연으로 결혼이주여성인 티베트 민속예술 ‘빨래춤’을 선보였다. 이 춤은 전통적인 빨래 동작을 예술로 승화한 것으로, 티베트 여성의 삶과 공동체 정신,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박수를 받았다.

개회사를 맡은 서춘성 위원장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다”며 “외국인과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 행사에서는 ‘세계인의 날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하남시다문화가족후원회 상장 및 상금 등이 전달됐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관련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현재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세계는 모든 민족이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박애를 기반으로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과 베트남 수채화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전통의상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으며, 체험 후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통 장식품도 곳곳에 배치되어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센터는 ‘베트남 수채화 이재

민 작가’의 후원으로 그림 전시회를 열고 베트남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전시는 지난 4월부터 준비된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1층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에서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전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10명의 결혼이민자 교육생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름이 차별이 아닌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4일 2007년부터 2022년생 자녀를 둔 16가족(총 63명)을 대상으로 ‘5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가족놀이터는 ‘당일캠핑 & 동물.놀이체험’을 주제로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소풍동물원에서 진행됐으며,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당나귀, 면양,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 놀이기구 체험을 통

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캠핑과 놀이 체험이 적절히 어우러져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고, 부모들도 자녀와의 소중한 대화 시간을 가지며 가족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6월에는 ‘커플 팔찌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이 계속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보드게임하며 즐겁게 소통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4호점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7세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놀이터’ 프로그램을 총 10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동에게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의 자기표현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드게임 놀이터’에서는 ‘데칼코’, ‘씨니데이’, ‘에코몬’, ‘시퀀스 패밀리’ 등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아동들이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중 보호자들은 아동들과 함께 웃고 협력하며,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존감 향상, 문제 해결력 및 언어 표현 능력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게임 속 규칙을 익히고 지키는 경험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규범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승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감정조절력과 인내심도 키울 수 있었다. 보호자들은 수업 동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긍정적인 훈육 태도를 실천하는 계기를 가졌다.

한 보호자는 “집에서는 집중해서 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와 오롯이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보드게임이 이렇게 교육적인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앞으로 가족 여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보드게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의 사고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유익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보호자와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가정 내 긍정적인 소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풍선아트로 즐겁게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0일과 27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을 운영했다.

‘에어팝’은 풍선아트를 매개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문화적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상호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첫 회기에서는 참가자 간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풍선 재료와 도구를 직접 탐색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작품을 만들어 보며 풍선아트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1회기에는 ‘하트다발’, 2회기에는 ‘벽장식 꽃과 나비’를 완성하며 참여자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 전용 단체 채팅방도 개설했으며,

강의 종료 후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복습하는 모습을 통해 높은 참여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해보는 풍선아트였지만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에어팝’ 동아리는 매달 2회기씩 정기적인 작품 제작 활동을 이어가며, 향후 전시회 개최와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좋은 취미와 사람들과 따뜻한 만남이 큰 역할을 한다”라며 “에어팝 활동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한국 국가장학금 최고 40만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주배경 청소년에는 지원 안해...별도 기준 마련해 대출이라도 해줘야

한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아요.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에요.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어요.

올해 국가장학금, 얼마나 지원해?

한국의 국가장학제도는 가족 소득이 제일 많은 10구간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1구간까지 10단계로 나누어 지원해요.

올해 2학기부터 한국 정부는 국가장학금 1 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의 각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을 인상하기로 했어요. 9구간은 올해 장학금을 처음 지급하며 10구간은 아예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해 올해 지급되는 연간 국가장학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 학생과 차상위 계층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1~3구간은 585만원, 4~6구간은 430만원, 7~8구간은 355만원, 9구간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

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에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마감일인 6월 23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해요.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 청소년은 장학금 안줘?

국가장학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요.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혜택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적지 않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결국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학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어요. <베트남어 9면, 태국어 6면, 영어 4면, 몽골어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Korea National Scholarship Up to 40만원 Increased... Applications Until June 23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and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2025 2nd semester 1st national scholarship' until 6:00 PM on June 23rd.

The national scholarship is an income-linked scholarship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college students who meet academic standards and whose monthly income is below a certain level so that everyon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university educ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amount to up to 400,000 won starting from the 2nd semester of 2025.

How much is the national scholarship this year?

The Korean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support in 10 levels, from the 10th level with the highest family income to the 1st level with the lowest income. Starting from the second semester of this yea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the National Scholarship Type

I and the scholarship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by 300,000 won for levels 1 to 3 (40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by 200,000 won for levels 4 to 6 (25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nd by 100,000 won for levels 7 to 8 (15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Level 9 will be receiving scholarship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nd Level 10 will not be receiving any scholarships at all.

Looking at the annual national scholarships paid this year, reflecting the increased amount, students receiv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students in the lower-middle class can receive a full scholarship, and sections 1 to 3 can receive 5.85 million won, sections 4 to 6 can receive 4.3 million won, sections 7 to 8 can receive 3.55 million won, and section 9 can receive 1 million won.

Mean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xpected to further reduce the burden on college student households by establishing a housing stability scholarship to reduce housing costs for basic and lower-middle-class

college students, and this increase in support unit price is expected to further reduce the burden on college student households. During the first integrated application period for this second semester, you can apply for the housing stability scholarship and national work-study scholarship together, and the application target is all college students, including current students, returning students, new students, transfer students, and re-enrolled students.

In particular, since first-time applications are the rule for current students, you should check the application period and method and apply this time.

Applications can be made 24 hours a day on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ebsite (www.kosaf.go.kr) and the mobile app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but on the deadline day, June 23, applications are only accepted until 6 p.m.

Meanwhile, if you need detailed consultation on applying for a national scholarship, you can receive a phone consultation (1599-2000) or

visit the foundation center (Youth Entrepreneurship Center/Regional Center) in each region to receive personalized one-on-one consultation.

No scholarships for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National scholarships are only given to those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herefo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migrant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through marriage, etc., can receive the benefi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cholarships are not given to immigrant youth who really need the benefits.

A considerable number of immigrant youth are having a hard time paying for college tuition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ir par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immigrant yout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and getting a job,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them with national scholarships or at least allow them to take out tuition loans.

<한글 기사 상단>

파과야스토리

디퓨저 만들며 공감대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MBTI 디퓨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30~50대 여성들이 모여 디퓨저 제작 체험을 통해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날 실시한 MBTI 검사와 해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형 MBTI 디퓨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디퓨저 만들기 과정에서 서로의 성격 유형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 참여자 간 이해와 공감대도 형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내 성격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고,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내·외국인이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안전한 금융생활, 미리 준비해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금융교육협회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활동지,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4회에 걸쳐 화폐의 필요성과 발달과정,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면서 아이들은 화폐와 환전, 환

율 등의 기초 지식을 쌓고 금융회사별 역할과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특히 신용점수 관리,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예방 같은 중요한 금융 윤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금융 생활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용돈의 의미와 관리법,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의 구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접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수업 중간중간 진행된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OX퀴즈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평소 아이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한국잡월드 진로 직업체험

평택시가족센터,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7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업·진로에 대한 흥미 분야를 탐색하고 미래 진로 설정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30여 개의 직업체험실과 진로설계관 탐방, 숙련기술 체험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확인하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멘토와 멘티가 지난 2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멘토링 진



행 방향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멘티는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혔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기에 이르고 있다. 멘토링은 학습, 예술, 체육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멘토가 멘티를 대상으로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 1:1 개인 지도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누적 대학생 멘토 37명, 멘티 3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센터는 여름방학 기간 중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진행

평택시가족센터,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0일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자조모임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 2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는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체험 활동으로 구성돼 참여 아버지들이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기 자조모임(5명)과 아동청소년기 자조모임(5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의미 있

는 만남이 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짓수를 체험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실생활에 유용한 호신술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은 ‘나를 지키고 자녀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자기방어 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아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아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버지들이 양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독서
융합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

키즈스쿨레와 함께 하는 독서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전문강사의 구연동화를 듣고 스토리텔링과 만들기 진행

모집대상 : 평택시 거주 21년생~22년생 아동과 보호자 10가정

진행일시 : 2025.06.11.~07.09. 매주 수요일 각 반별 5회 진행
A반 16:00~16:40 22년생 아동과 보호자 5가정 10인
B반 16:50~17:30 21년생 아동과 보호자 5가정 10인

진행장소 :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고덕국제대로202, 르 플로랑@ 내 공동육아나눔터

신청일시 : 2025.05.26.(월) 10:00~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tfc.family.or.kr>)에서 보호자명/아동명으로 회원가입 후 보호자를 가족대표로 체크 후 아동아이디 추가하여 등록 ➡ 해당 프로그램 신청하기 클릭 후 가족선택에서 아동아이디 확인 후 신청

문의 : 031)611-0308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5회 모두 참여 가능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25년 프로그램 참여 신규 우선 선정-선착순 접수 예정입니다.

참여자 중 대표 1명만 신청 시 대기순번으로 변경됩니다.

보호자 1인과 아동 1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형제/자매 동시 신청 및 동반참여 불가

접수번호는 선정번호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A반 바로가기 B반 바로가기

가족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동사진 사용 동의 필수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아동기 부모교육

모집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16명

교육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tfc.family.or.kr>)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가족교육팀 031-615-3962

1회기
with. 행정부담감소사업추진소장
6월 11일 (수) 10:00~12:00
'성인지감수성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2회기
with. 행정부담감소사업추진소장
6월 18일 (수) 10:00~12:00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지도법'

모든 회기(2회기)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의 경우 향후 진행 될 양육스트레스해소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 및 교육 당일 무단 불참은 다른 신청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및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 추후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

금융안전교육
& 식생활꿀팁

모집대상 : 관내 거주 및 실질적 1인가구 15명
(등본, 학생증, 재직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명함 등 1인가구 확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모집기한 : 2025년 05월 22일(목)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 ①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 폼(QR코드 참조)으로 증빙서류 제출

강의장소 : 평택시가족센터(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문의 : 가족교육팀 031-615-3962

1회기: 금융안전교육 - 재무설계! ①
강의일정 : 6/17(화) 19:00~21:00
강의내용 : 투자의 기본 원리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운용 이해

2회기: 금융안전교육 - 재무설계! ②
강의일정 : 6/24(화) 19:00~21:00
강의내용 : 연금의 종류와 운용 방법

3회기: 금융안전교육 - 가족지갑만들기
강의일정 : 7/1(화) 19:00~21:00
강의내용 : 가족지갑 만들기

4회기: 식생활꿀팁-밀피유나베만들기
강의일정 : 7/8(화) 19:00~21:00
강의내용 : 밀피유나베 만들기

모든 회기(총 4회기) 참여가 가능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전 회기 참여자에게는 하반기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시 우선순위 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6월 가족놀이터

커를 온팔찌 만들기

이날 온팔찌

대상 : 13~19년생 자녀를 둔 20가족(40명)
★가족당 2명만 참여가능(ex. 아빠 + 자녀 1명 or 엄마 + 자녀 1명)★

체험 일시 : 6월 21일(토) 10:00~13:30
★1그룹 : 10:00~11:30 (10가족) / 2그룹 : 12:00~13:30(10가족)★

체험 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107호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모집 기간 : 6월 2일(월) 10:00 ~ 정원 마감 시까지

안내사항

참여 할 가족구성원 모두 각자 회원가입하기
(★어린이회원가입시, 부모님 핸드폰 번호로 SMS인증하기 ★)

가족대표 지정 및 가족구성원 추가하기

'프로그램 신청하기 ▶ 가족구성원 선택 ▶ 개인정보 제3자동의 ▶ 신청하기'
※가족구성원 선택 체크 후, 자녀이름이 뜰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녀이름 확인 후, 신청버튼을 누르셔야 데이터에 접수가 됩니다)

참여하려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신청되지 않으면, '대기'로 접수됩니다.
신청 후, 팝업은 단순히 접수 순서일뿐, 확정번호가 아닙니다.(확인 및 대기문자 1~2일내 발송)
가족놀이터는 연 2회 참여가능합니다. 참여횟수가 충족된 경우, '대기'로 접수됩니다.
취소하거나 당일 불참시, 다음 놀이터에 '참여제한'이 발생합니다.

1그룹 신청

2그룹 신청

문의 : 가족교육팀 031-615-3965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아이와 요리하며 육아 레벨 UP!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역할·지원사업 실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4일 영유아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30가족(총 68명)을 대상으로 ‘육아만렙! 아빠 레벨업 클래스’ 4~6회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홈파티 요리 만들기’를 주제로 밀폐유나베와 토핑 유부초밥 두 가지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이 이뤄졌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참여하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요리 체험 과정에는 아버지들이 칼 사용과 같은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자녀의 자율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

다.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요리 활동에 몰입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기존 자조모임 참가자 및 체험 활동에서 만난 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친목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소중한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집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며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에서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 함께 평택고려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0일 평택고려인협회(대표 황갈리나)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시가족센터와 평택고려인협회는 앞으로 교육 문화지원, 여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증진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평택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글빛, 캘리그래피’ 동아리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5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글빛,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시작했다.

이번 동아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월 2회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기초 글씨 연습부터 문구 제작, 작품 전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캘리그래피 동아리는 5월부터 10월 까지 꾸준히 진행되며, 10월에는 참여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진로컨설팅으로 진로 고민 해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0일 센터 내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의 일환으로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진로컨설팅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습 능력, 학습 전략, 다차원 인성, 성격 유형, 진로 탐색, 학과 탐색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사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검사를 하며 자신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검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흥미와 적성에 대한 방향을 찾은 참가자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

을 넓히고, 자신에게 맞는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신기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17일에도 센터 내 교육장에서 ‘두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1:1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 컨설팅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학부모 또한 자녀의 진로 고민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되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진학설명회

모집기간 : 5월 20일(화) ~ 6월 20일(금)

- 참여대상 : 예비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15명 내외
*두드림(Do Dream) 참여자 우선선발
- 일 시 : 6월 21일(토) 10:00~12:00
-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강 사 :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이영춘 교사
- 내 용 : 자유학기제, 중학교 수업과 평가, 질의 응답 등
- 비 용 : 무료
- 장 소 : 평택시 가족센터(서정로295) 1층
- 문 의 : 가족교육팀 031-615-3901

신청 QR

★ 안내사항 ★
* 진학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6/21(토) 두드림(Do Dream) 직업체험 “목공예가” 프로그램 우선 참여 혜택을 드립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유지영)는 5월 21일 진주류씨 목천공과 종중으로부터 ‘태교는 인문학이다’ 도서 700권을 기증받는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중 류기춘 회장과 도서 저자 박숙현 작가, 유지영 센터장, 이기욱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태교는 인문학이다’는 조선 후기 여성 교육가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서로 예비 부모들에게 태교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하고 있다. 기증된 도서는 용인시 처인구 내 혼인신고한 한 신혼부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류기춘 회장은

“이사주당이 쓴 ‘태교신기’를 재해석해서 나온 ‘태교는 인문학이다’ 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자 박숙현 작가 역시 “신혼부부들이 이 책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꾸리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유지영 센터장은 “태교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이 만들어지도록 기증된 도서를 처인구 신혼부부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 도서 기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용인특례시 남사도서관에서 풍성한 6월 독서 프로그램 참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남사도서관은 6월 한 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일부터 처인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탐방여행 ‘도서관 견문록’을 운영한다. ‘도서관 견문록’은 올해 3월 개교한 처인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함께 원예를 중심으로 한 독서 지도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10일부터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와 블록 코딩 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제작해 보는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스마트팜 만들기’를 매주 화요일 3회차에 걸쳐 운영한다.

28일엔 경기도예술나눔기획 주관으로 소프라노와 피아노로 구성된 4인조 여성 음악가가 들려주는 앙상블 공연 ‘경기도 디바의 음악여행’이 열린다.

또 6월 한 달간 백유연 작가의 ‘계절 그림책’ 전시회도 진행된다. 웅진주니어 출판사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는 ‘동백 호빵’ 등 총 8권으로 완간된 백 작가의 계절 그림책 시리즈로 이뤄졌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참가 모집 일정은 남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부부프로그램 다함께 행복하기

2025.06.02(월)~07.01(화)

모집대상

용인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부부 12쌍
(대면 프로그램 시 자녀돌봄 지원)

참여자 선정 기준

1순위: 부부 갈등의 어려움으로 해소의 욕구가 있는 용인시 거주 다문화 부부
2순위: 부부 친밀감 향상 및 가정 분위기 형성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가 있는 용인시 거주 다문화부부

유의사항

평일에 진행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
키트는 한 가정 당 1개씩 배부
(배부 시간 외 수령 불가)

활동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족을 위한
문화 이해 교육 및 요리 체험 프로그램
+ 즐거운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7/5 (토) 우리 뽀의 세계 교육
7/11 (금) 향기테라피(캔들 만들기)
7/19 (토) 우리 뽀의 문화 교육
7/25 (금) 남남 떡 만들기(송편)
11/1 (토) 우리가족 나들이

신청방법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 | 다문화부부지원사업 담당자 T. 070-7477-8545

우체국 국제특송 EMS 다문화가족 할인안내

Discount on international post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y

EMS서비스 특징

-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우편 네트워크를 통해 서류, 상품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
-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접수 및 중·추적 정보 제공

다문화 가족 우대서비스

요금할인	EMS(EMS프리미엄) 요금 10% 할인
할인대상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요금납부방법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 우체국	모든우체국 (☎1588-1300, www.epost.go.kr)

EMS 이용시 우체국체크카드로 결제하면 EMS요금 10% 할인외에도 추가 최대 12%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 체크카드 종류에 따라 캐시백 한도는 다를 수 있음)

우체국은 다문화가족이 EMS발송 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We offers a 10% discount on the delivery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by EMS.

多元文化家庭在邮局发送, EMS时可享受10%的优惠.

郵便局は 多文化家族が EMS送信時10%割引いたします.

Bưu điện sẽ giảm giá 10%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khi sử dụng dịch vụ vận chuyển EMS.

Trung tâm gia đình Yongin

Giáo dục tiếng hàn theo tiêu chuẩn

Đối tượng

Người di trú kết hôn (F-6, F-5, nhập quốc tịch) sống tại Yongin. Mỗi lớp 15 người (theo thứ tự đăng ký)

Cách đăng ký

※ Phải đăng ký cả 2 bước dưới đây!! (quét mã QR bên dưới)
1. Đăng ký lớp tiếng hàn sau khi gia nhập thành viên trang chủ trung tâm
2. Đăng ký mẫu đơn google (online)

Kiểm tra trình độ

Tiến hành kiểm tra trình độ người đăng ký lớp 1, lớp 2 (mẫu online)

Nội dung

Tên lớp	Thứ	Giờ học	Lịch trình	Phương pháp và địa điểm
Lớp 1	Thứ ba, thứ năm	10:00~13:00	Thứ năm 5/6~ Thứ năm 28/8	Online(ZOOM) (ngày cuối : Ủy ban quận Cheoin)
Lớp 2		13:00~16:00		Ủy ban quận Cheoin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Lớp 3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Thứ hai, thứ tư	13:00~16:00	Thứ hai 2/6~ Thứ hai 25/8	Ủy ban quận Cheoin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Lớp 4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10:00~13:00		
Lớp 4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Thứ ba, thứ năm	13:00~16:00	Thứ năm 5/6~ Thứ năm 28/8	Online(ZOOM) (ngày cuối : 용인시가족센터)
NEW Lớp phát âm/nói (Tiếng hàn thú vị, dễ hiểu)	Thứ hai, thứ tư	13:00~16:00	Thứ tư 4/6~ Thứ tư 27/8	Ủy ban quận Giheung :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Lớp Topik Ôn thi topik 3, 4	Thứ ba, thứ năm	10:00~13:00	Thứ năm 5/6~ Thứ năm 28/8	Trung tâm gia đình Yongin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 Tư vấn : Nhóm dự án 1 070-7477-8540

본회의 중심
기회의 공간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가족센터

자주문화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龙仁市家庭中心

分阶段 韩语教育

报名对象

居住在龙仁的 结婚移民者(F-6, F-5, 取得国籍) 每班15人 (依照报名顺序, 报满即止)

申请方式

※ 以下2项必须申请!! (扫描QR)
1. 注册龙仁市家庭中心网站并申请韩国语课程 (以结婚移民者的名义加入)
2. 谷歌(网上) 申请

水平测试

1,2 阶段的申请者, 需事先参加线上韩语能力测试

教育内容

半个人	礼拜	营业时间	学期日程	进行方法及场所
1阶段	周二, 四	10:00~13:00	6/5(四)~8/28(四)	Online(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처인구청)
2阶段		13:00~16:00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3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周一, 三	13:00~16:00	6/2(一)~8/25(一)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4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10:00~13:00		
4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周二, 四	13:00~16:00	6/5(四)~8/28(四)	Online(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용인시가족센터)
NEW 发音/口语 (简单有意思的韩语)	周一, 三	13:00~16:00	6/4(三)~8/27(三)	기흥구청 :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周一, 三	周一, 三	10:00~13:00	6/5(四)~8/28(四)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 详情请询 : 事业 1部 070-7477-8540

본회의 중심
기회의 공간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가족센터

자주문화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용인시가족센터

수준별 한국어교육

모집 대상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각 반별 15명씩(선착순)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한국어교육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레벨테스트

1단계, 2단계 신청자 레벨테스트 진행(온라인폼)

교육 내용

반 명	요 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진행 방법 및 장소
1단계	화, 목	10:00~13:00	6/5(목)~8/28(목)	온라인(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처인구청)
2단계		13:00~16:00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3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월, 수	13:00~16:00	6/2(월)~8/25(월)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4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10:00~13:00		
4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화, 목	13:00~16:00	6/5(목)~8/28(목)	온라인(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용인시가족센터)
NEW 발음/말하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월, 수	13:00~16:00	6/4(수)~8/27(수)	기흥구청 :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토픽과정 (토픽 3~4급 대비)	화, 목	10:00~13:00	6/5(목)~8/28(목)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 문의 : 사업 1팀 070-7477-8540

본회의 중심
기회의 공간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가족센터

자주문화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용인시가족센터

발음/말하기
특강

모집 대상

용인시 거주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15명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3단계 이상 수료자
※ 2학기 100% 참석 가능자 우선 접수

일 정

6/10(화), 6/12(목) 13시~16시 (총 2회기)

장 소

용인시가족센터(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내 용

발음 교정 및 말하기 연습(+ 수강생 2인 1조 대화하기)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한국어교육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문 의

사업 1팀 070-7477-8540

1. 홈페이지 신청

2. 구글폼 신청

본회의 중심
기회의 공간

용인특례시

용인르네상스

가족센터

자주문화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가사 양육 스트레스 날려요!

용인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가 오는 6월 4일부터 28일까지 용인시 거주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사와 양육으로 지친 워킹맘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6월 4일, 11일, 18일, 2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같은 이름으로 운영된 힐링 마더스 클럽은 푸드테라피, 미술심리치료, 꽃꽂이, 영화관람 등의 힐링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평균 4.7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림책 원예, 공예 활동, 푸드테라피 등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인시가족센터는 워킹맘들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가정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감정 회복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영 센터장은 “올해도 많은 워킹맘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가사와 양육으로 지친 마음을 돌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청소년과 다문화자녀 지원!

용인시가족센터-백암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5월 22일 백암중학교와 용인시 내 청소년 복지 증진과 다문화 자녀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다문화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지영 센터장과 백암중학교 정홍진 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가정 문제·학업·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

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다문화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 中 양저우시와 간담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시청을 방문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대표단과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저우시가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와 산업과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양저우시 대표단의 요청에 대해 두 도시가 협력해 동반 성장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와 중국의 양저우시는 서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있다. 용인특례시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첫 번째 도시는 양저우시다. 양저우시 역시 처음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용인특례시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용

인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 도시로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도시라고 소개하면서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라고 소개했다.

양저우시 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와 첨단인공지능 산업, 양저우시의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10월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리는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용인특례시를 초청했다.

이상일 시장과 천쥘 부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양 도시의 기념품을 교환했고, 양저우시 대표단은 용인특례시에 첨단산업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한 ‘용인테크노밸리’를 견학했다.

이지은 기자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해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어학과 자격 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지원 과목을 늘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1985년생~2007년생)이며, 응시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30만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자는 응시일 당일을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여야 하나, 단기간노동자(1년 미만 계약)의 경우엔 취업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정부 기관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상반기(5월~7월)와 하반기

(8월~11월)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 시 하반기에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 예산까지 모두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지원 시험 종류는 TOEFL, TOEIC 등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 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비가 8월 중순에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 과목을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했으니, 많은 청년들이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본격 운영

연천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실질적 지원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량)는 법무부 지정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과정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30일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16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 교육을 차례로 운영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번 2단계 과정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17일

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 이해를 돕는 문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자는 비자 및 영주권 가점 등 실질적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량 센터장은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3단계 교육에는 더 많은 연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연천군, 베트남 현지 추진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

연천군이 베트남 동탑성과 손을 맞잡고 현지에 ‘한국문화 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동탑성 대표단이 연천을 방문, 김덕현 군수와 베트남 현지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 베트남 동탑성 담농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4일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살펴보고,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어 다음날 농특산물 장터를 살펴본 뒤 제32회 연천 구석기축제 현장을 찾아 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덕현 군수와 전남담 단장은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향후 연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코이카(KOICA)와 협력해 오는 20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베트남 현지에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베트남 동탑성과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은 물론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우호교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천군과 베트남 동탑성의 우애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지는 기자

Gia đình đa văn hóa sử dụng “Dịch vụ giao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cho trẻ mẫu giáo” của tỉnh Gyeonggi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Trong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không ít trường hợp lo lắng vì sự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nhỏ bị chậm.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iều tốt nhất là gọi điện đến Trung tâm Gia đình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ể nhận dịch vụ phát triển ngôn ngữ. Ngoài ra, hãy thử sử dụng ‘Dịch vụ giao sách và đồ chơi cho trẻ nhỏ’ của tỉnh Gyeonggi. Tỉnh Gyeonggi đang vận hành ‘Dịch vụ giao sách và đồ chơi cho trẻ nhỏ’, gửi sách và đồ chơi phù hợp với giai đoạn phát triển của trẻ đến tận nhà và hỗ trợ hướng dẫn cách chơi. Nhân viên hướng dẫn chơi người bản xứ sẽ đến nhà, dùng sách và đồ chơi phù hợp để chơi cùng con bạn, giúp phát triển ngôn ngữ rất nhiều. Ngoài ra, mẹ cũng có thể học cách nhân viên hướng dẫn chơi tương tác với con bằng tiếng Hàn.

Năm ngoái, tỉnh Gyeonggi đã hỗ trợ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cho 4.440 hộ gia đình có trẻ nhỏ. Năm nay, số lượng hộ gia đình được hỗ trợ đã tăng lên đáng kể, đạt 15.990 hộ. Ngoài ra, nhằm đáp ứng ý

kiến của người tham gia, đối tượng hỗ trợ được chia nhỏ hơn theo độ tuổi: từ 0–11 tháng, 12–23 tháng và 24–35 tháng. Số lần hỗ trợ trong năm cũng sẽ được mở rộng vào các tháng 5, 7 và 9.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là các hộ gia đình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có con từ 0 đến 35 tháng tuổi, thuộc một trong các nhóm sau:

▲ Hộ gia đình thuộc diện khó khăn (hộ được hưởng trợ cấp cơ bản, cận nghèo, gia đình đơn thân)▲ Hộ gia đình tự chăm sóc con tại nhà (không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tại cơ sở).

Các gia đình được chọn sẽ nhận được tài liệu và đồ chơi học tập trị giá 30.000 won qua dịch vụ giao hàng. Trẻ từ 0–11 tháng sẽ nhận được lều chơi và bộ khối hình. Trẻ từ 12–23 tháng sẽ nhận được xe buýt safari, khối cầu vòng và bộ câu cá hình cá mập. Trẻ từ 24–35 tháng sẽ nhận được bộ đồ chơi nam châm.

Tỉnh Gyeonggi không chỉ hỗ trợ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mà còn cung cấp cả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rực tuyến với hướng dẫn sử dụng tài liệu, đồ dùng học tập và ý tưởng trò chơi. Ngoài ra, các gia đình có nhu cầu còn có thể nhận được dịch vụ huấn luyện chơi nâng cao thông qua các chuyên gia hướng dẫn trò chơi được bố trí tại từng thành phố và huyện.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khó khăn có thể liên hệ với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tại khu vực cư trú để được tư vấn.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chăm sóc trẻ tại nhà, hãy kiểm tra thông báo trên trang web của Trung tâm Hỗ trợ Tổng hợp Nuôi dạy Trẻ tại khu vực cư trú (<https://url.kr/pxb28b>) và nộp đơn trực tuyến.

Cô Koh Hyun-sook,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Chăm sóc Trẻ em tỉnh Gyeonggi, cho biết: “Thông qua các tài liệu giảng dạy, đồ chơi và giáo dục vui chơi phù hợp với giai đoạn phát triển, chúng tôi sẽ nâng cao sự tự tin của phụ huynh trong việc chơi cùng con và góp phần đảm bảo quyền vui chơi của trẻ nhỏ.”

〈한글 기사 13면〉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실생활 중심 태교 교육 호응

과천시 '부부 태교 교실' 알찬 교육 호평



과천시는 실생활 중심의 태교 교육을 운영해 예비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과천시 보건소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대강당에서 예비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 태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 태교 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함께 참여해 올바른 육아와 태교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내용은 '행복한 부부 태교', '신생아 돌보기', '우리 아기 안전하게 키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17일에 열

린 교육에서는 신생아의 기본 특성과 수면 방법, 아기 달래기, 목욕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부부 태교 교실은 지난해에도 참여자의 98%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직접적인 체험 중심의 구성으로 예비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들께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천시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2기 교육은 10월 1일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총 3회 진행한다.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모자건강팀(02-2150-3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함께 국가유산 탐방

과천시가족센터, 문화위드유더봄 협력 진행



과천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18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주)문화위드유더봄의 협력으로 '대한의 문, 영웅이 열다'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국가유산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덕수궁과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른 아침, 셀레이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오른 참가자들은 덕수궁에 도착해 대한문, 중화전, 석조전, 중명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황제를 상징하

는 동물과 문양, 단어들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완성된 코드번호는 '1897', 대한제국이 선포된 해이다. 참가자들은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굴곡진 역사를 온 몸으로 느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서대문형무소로 향했다.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조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숙연함을 느꼈다. 특히 여옥사 8호 감방 앞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다. 이번 국가유산 탐방은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과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서로의 문화가 다르더라도 함께 걸으며 나눈 하루는 모두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자료 과천시가족센터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두 언어로 행복한 우리집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키즈반

엄마손, 아빠손 잡고

자녀연령에 맞추어 통합놀이해요~

일시

7/12(토), 7/19(토) 15:30~17:00

장소

과천시가족센터 2층 누리마루

대상

만3세 이상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7가족

내용

특특! 미술교실 (7/12), 특특! 운동교실 (7/19)

모집

2025년 6월 4일 (수) ~ 모집완료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접수 (가족구성원 묶어서 접수한 가정 우선)

비용

무료

문의

02.503.0070 (이중언어 교육지원 담당자)

오늘은
엄마나라말, 아빠나라말로
놀이하며
자녀와 눈맞춤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
센터

과천시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두 언어로 행복한 우리집

언어로 뿌리를, 문화로 날개를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교육가이드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심있는 다문화가족 부모

일시

7월 5일 토요일 15:00~17:00

대상

0~13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및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10가족

내용

이중언어는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자녀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놀이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소

참여자 가정 (ZOOM 활용 비대면 교육)

신청기간

2025년 6월 4일(수) ~ 모집완료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부모 모두 참여시, 홈페이지 모두 신청)

문의

02-503-0070 (이중언어 교육지원 담당자)

가족
센터

과천시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면 이주민의 삶이 달라져요

‘송실사이버대학교만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실력 UP...’송실력자’의 더 행복한 한국생활 시작!’

한국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모든 이주민들의 꿈이에요. 체류 자격과 취업 등 2가지 문제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경험하는 큰 과제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외국인주민에게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한 편리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까요?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어떤 학교야?

1997년 설립된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진리'와 '봉사'라는 교육이념 아래, 7천여 명의 재학생과 각 분야별 2만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한민국 온라인교육을 선도하는 사이버대학교예요.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 공인 및 학교 인증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특히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전공과목의 평생무료 수강이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어떤 점이 좋아?

송실사이버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요.

특히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만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더 특별한 기회를 얻고 싶다면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대학 졸업장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직장 and 한국어 공부 및 다양한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

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송실사이버대학교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가점 20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노력에 따라 대학교 졸업 과정에서 토픽 4급은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 비자 관련 점수 120점을 취득하는데도 유리해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외에도 F-2(거주) 비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요.

학비가 비싸지 않을까?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저렴한 학비로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288만원으로 일반 대학 학비보다 저렴해요. 특히, 협약을 맺은 서울 및 경기도의 가족센터 및 외국인복지센터의 외국인 회원 학생에게는 50%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1년 학비가 144만원에 불과해요. 또한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도 30% 장학 혜택의 기회가 제공돼요.

한국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

송실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도 입학 and 수업 참여가 가능해요.

먼저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해 한국어 기초과정인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4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이후 한국어교육학과와 본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응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돼요. 또한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전공 4학기 과정을 이수 후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

국어교육학과 외에 26개 학과의 수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까?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한 다와라모 씨의 교육경험을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사 학위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한국어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을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송실사이버대학교의 수업이 일반 온라인 수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큰 매력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수업 내용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또한 교수님께서 기본 지식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조교 선생님에게 즉시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대학교 학위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거예요. 그럼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저의 삶이 무척 기대돼요.”

입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송실사이버대학교는 2025학년도 2학기 1차 신입생 모집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해요. 2차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예요. 원서접수는 송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cu.ac)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한 후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돼요.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cu.ac) 또는 입학상담전화(02-828-550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송하성 기자



정책 한눈에 봐

우리나라 돌봄 인력 해결,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특정활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고, 올해 1월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자부터 일자리카지 지원!
D-2(유학) 비자와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E-7(구직)로 변경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하다.
-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자격 취득 주요 정보는 어디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우수 장기요양기관 정보



044-202-3521, 35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 * 국내 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시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 장기 체류 가능: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 필요

3 E-7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유학생		노인의료복지시설	
한국어 능력(다음 중 하나)	학력 요건	임금 요건	고용 비율
- 사회통합프로그램(KIOP) 3급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OP) 사전평가 6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최저임금 이상	국인 고용인원 대비 20% 내 하용

KIS+story

Tackling Korea's Care Workforce Shortage -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tudents!

"Caregiver" Now Recognized as an Eligible Occupation under the E-7 (Special Activity) Visa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stablished a new system that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graduated or will graduate from Korean universities or colleges to obtain an E-7 (Special Activity) visa if they acquire a caregiver certificate and secure employment at a care facility.

In July 2024, the Ministry of Justice added "caregiver" as a new occupational category under the E-7 visa, allow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elder care sector. The first visa under this new category was issued in January 2025.

This system supports international students in settling in Korea and securing stable employment in the field of elderly ca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not only to addressing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caused by Korea's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but also to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1 What Is the Caregiver Certificat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rtificate to Visa and Employment—Comprehensive Support for Aspiring Caregivers!

The program expands eligibility for caregiver to include individuals holding D-2 (International student) and D-10 (Job seeker) visa status, supporting them in transitioning to E-7 (Special Activity)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senior care facilities. The E-7 visa allows for a maximum stay of three years per issuance. To extend their authorized stay,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is required.

- The caregiv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im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caregivers in Korea and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Where Can You Find Key Information on Earning a Caregiver Certificate?

Information on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s and Leading Long-Term Care Facilities



044-202-3521, 3514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Division) website or local city/provincial government websites.

2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w Eligible to Work as Caregivers!

What Does a Caregiver Do?

Caregivers assist with physical activities and daily living, including meals, bathing, walking, and basic rehabilitation exercises such as mobility training. They also provide emotional support by offering companionship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How Can You Become a Caregiver?

*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or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college in Korea are eligible to obtain a caregiver certificate.

- A total of 320 hours of training must be completed, including 240 hour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truction at a certified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 and 80 hours of on-site training at a long-term care facility.

- Pass the Care Worker Qualification Exam, administer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KHPLI).

What Benefits Can You Expect After Becoming a Certified Caregiver?

* Become eligible to obtain the E-7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a senior care facility (nursing home) after acquiring the caregiver certificate.

* Become eligible for long-term stay (Please note that extending the authorized stay requires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3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E-7 Visa Status?

International Students		Senior Care Facilitie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y one of the following)	Educational Requirement	Wage Requirement	Employment Ratio
- Completion of Level 3 or higher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OP) - Score of 61 or higher on the KIOP placement test -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ssociate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or college	Must offer at least the legal minimum wag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 permitted up to 20% of the total number of Korean employees.

출입국 공문타짜

타짜어 비자

e-Arrival Card

전자입국신고

1345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여행, 유학, 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한국 생활이 더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다양한 행정 및 생활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어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나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덜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KIS+share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물 외국인등록증

Q.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즉시 발급되나요?

A.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으려면 전자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QR 코드를 스캔한 후 본인인증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 고자 한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입국

#전자입국신고

#여행사를 통한 가족 여행

#대리인 작성

Q. 지난달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전자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하 입국 절차가 간소화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사 단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행을 통해 전자입국신고서를 해도 되나요?

A. 여행사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하더라도 제출 전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타짜어 #우수인재 #F-2 비자

Q. 최근 본격 시행된 타짜어(Top-Tier) 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타 짜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타짜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비자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짜어(Top-Tier) 요건

- (학력)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 (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취업)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2만 달러 3배 이상(1억4986.5만원)인 자 ※ 연간 근로소득이 12만 달러 4배 이상(1억9982만원) 이상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

#출입국 관련 통계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Q. 업무상 여러 기관의 출입국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등)임에도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의 통계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통계작성 기관마다 작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출국자 현황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한국 국적 출국자 수를 산출하나, 한국관광공사는 국민 중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분류기준'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포함되나, 법무부의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산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코도시락 만들며 환경 생각해요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새솔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속가능한 일상 실천을 주제로 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ESG 가치를 생활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화성형아이키움터 새솔점에서 진행된 ‘꼬마셰프의 에코 도시락’ 활동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일회용품 최소화, 로컬푸드 활용 등 실천 중심의 체험으로 가족이 함께 ESG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 가족들은 개인 도시락통, 숟가락 등 다회용 식기를 직접 준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캐릭터 도시락’과 ‘화분 모양 요거트’ 만들기를 통해 요리의 즐거움과 자원 절약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푸드마일리지’ 개념을 소개해 지역 농산물 활용이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렸다.

가족들은 식재료의 원산지과 유통 경로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식생활 속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총 7가족 중 2가족은 아빠와 자녀로만 구성된 팀이었으며, 다른 가족에서도 아버지들이 아이와 함께 요리에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는 물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됐다.

참여자들은 “요리를 통해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좋았다”, “푸드마일리지라는 개념이 흥미로웠고 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ESG 실천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아빠와 오감 미술놀이, 즐거움 '팡팡!'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 아빠와 유아 대상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지난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

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발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라며 “집에서 미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육아의 즐거움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였다. 앞으로도 아빠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100만 인구를 돌파하며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의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관내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해 이주배경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지난 2025년 4월 17일, 관내 10개 기관(화성시의 국민복지센터 외 8개 유관기관 및 화성장안초등학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의 사업 홍보는 물론,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각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새롭게 문을 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내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향후 공동사업 기획, 사례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상담 ▲취업 및 자립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희망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2025년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한국생활처음

한국음식"국"

★ 알려드립니다! ★

- 모집대상** 입국한지 5년 미만 결혼이민자 10명 (센터 신규회원 우선)
- 모집기간** 5. 19. 월요일 ~ 선착순 마감
- 사업일시** 6. 11~ 7. 16(매주 수요일) 10:00~12:00 총 6회기
- 사업장소** 화성시가족센터 3층 요리실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후, 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 필수

다양한나라 요리 1회기

한국 일반찬요리 5회기

화성특례시 화성시가족센터 070-7774-7080



화성외복,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우러진 ‘2025 화성 세계문화축제’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화성시의 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5월 18일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5 화성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국적과 인종, 세대를 넘어 다문화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구원 화성시 제1부 시장을 비롯해 최은희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이오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소장, 이윤근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이사, 찔름

보름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투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 등 내외빈과 화성시민, 외국인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공로자 표창, 캄보디아 전통공연, 축하가수 공연(소냐, 테너 진정훈), 세계인의 날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손녕희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105만 화성시민과 이주민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모두에게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구원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

성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이 건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개소, 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지원팀 신설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웃을 이해하며, 글로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네팔·태국 전통공연, 외국인 태권도 시범, 다문화합창단, 택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화성시민과 외국인주민이 대

거 몰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놀거리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다.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다문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존’ ▲기관 홍보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홍보존’, ‘마켓존’ 등 약 60개의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 체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과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